



Summary of Budget for FY2014

나라살림 | 예산개요



2 0 1 4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4

CONTENTS

01

제1부 201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005
---	------------

제1장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007
제2장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019

02

제2부 2014년도 나라살림	029
------------------------------	------------

제1장 2014년도 나라살림 종합	031
1. 재정운용 여건	033
2. 세입 규모	034
3. 지출 규모	041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045
제2장 재정운용 방향	049
1. 자원배분 방향	051
2. 중점 추진과제	057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088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089
1. R&D 분야	091
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098
3. SOC 분야	106
4. 농림·수산·식품 분야	118
5. 보건·복지 분야	127

6. 일자리 분야	139
7. 교육 분야	145
8. 문화·체육·관광 분야	153
9. 환경 분야	163
10. 국방 분야	171
11. 외교·통일 분야	176
12. 공공질서·안전 분야	180

03

제3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89

제1장 2014년도 예산 191

1. 2014년도 예산 총칙	193
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198
3.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232
4.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234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238
5.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239

제2장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41

1. 기금 요약 (Summary of Funds)	243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245
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246
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250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55
----------------	-----

01

201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제2장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www.mosf.go.kr

제1장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2 0 1 4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4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서 시정 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여당의 위치에서 고뇌하고 노력했던 곳이기 때문에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각 분야별로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외교력을 강화하고, 세일즈외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인프라 건설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선진국들과의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틀을 만드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저는 그 길을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며 그것이 지금의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경제가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농어촌에서 밤을 잊고 노력하셨던 분들의 땀과 해외의 사막에서, 정글에서, 탄광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일어설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각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기조 별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국민께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서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출범 직후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세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불을 넘어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입니다.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고, 임금 피크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근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 센터의 확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제대로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벤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꿈의 실현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도 개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타운에는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아이디어까지 약 3,000여 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빛을 발하고,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2,500여명의 멘토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타운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계신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의지와 상상력, 기술력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협력으로 하도급 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 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통과되어야 지금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하였고, 자율 교과과정 확대와 예체능 교육 및 진로직업 교육 강화 등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선결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9개월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 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져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게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서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 3천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문화융성의 원천인 인문학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데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안들의 제·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문화융성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는 산업측면에서 창조경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현장에서 K-POP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에 열광하는 유

럽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ICT기술을 접목시킨 문화컨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최근, 승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승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아직은 어렵고 멀게 보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북한은 무력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 폐쇄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공단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한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권도 모두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가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를 존중하기 위하여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지난 일에 묶일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협력해 갑시다. 저와 정부는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대통령 박근혜

제2장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 0 1 4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4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선, 지난 5월 위원님 여러분께서한 마음 한 뜻으로 통과시켜 주신 추가경정예산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패키지 효과 등으로 최근 우리 경제가 꾸준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에 안주하지 않고, 두 번의 큰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경제의 저력을 살려 2014년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솟아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난 2년여간 지속되었던 0% 대의 저성장 흐름을 끊고, 전기대비 실질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높아졌습니다. 민간소비는 2010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진입하여 3/4분기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설비투자도 기업심리가 점차 개선되면서 2012년 1/4분기 이후 오랜만에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일자리는 3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늘어나면서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수출이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도 서서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신흥국의 성장둔화 우려,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최근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정상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표상의 숫자보다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 하나하나에 熱과 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나라살림의 전체 모습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고용률 70% 로드맵과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들을 착실하게 다져 왔습니다. 2014년 예산은 이러한 정책들을 담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370조 7천억원으로 2013년 본예산보다 $\Delta 0.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총지출은 금년 본예산보다 4.6% 늘어난 357조 7천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을 생각하면 씹씹이를 줄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 그리고, 새로운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인 GDP 대비 $\Delta 1.8\%$ 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비록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지만, 경제활력 회복으로 선순환 경제구조를 복원하고, 중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 부채관리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해 가겠습니다.

2014년 재정운용의 중점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의 중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

내년 예산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입니다. 투자를 촉진하며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보험 등 전체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24조 3천억원이 늘어난 430조 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산업 인프라도 육성하겠습니다.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14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육료·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도 10%p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 수준을 지방에 추가 지원합니다. SOC 투자규모는 경기여건을 감안해서 평년 수준보다 확대한 23조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업에도 3조 3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R&D예산도 17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조경제 타운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을 늘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전정신이 필요한 유망 기술에 대한 신규투자 확대로 신시장과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는 등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보다 12%가 늘어난 6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농림기술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농림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농림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2)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은 7.7%가 늘어난 11조 8천억원입니다.

첫째, 대상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을 위해 일-학습 병행시스템과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90곳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를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중장년의 제2도약을 위해 취업아카데미에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대학·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계·운영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도 20개소를 더 늘려 현장·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새롭게 부담합니다. 또한,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설비투자비·컨설팅비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셋째, 직접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64만 7천개를 지원합니다. 노년층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살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1천명 확충하는 등 공공부문의 현장서비스 인력도 많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3)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예산

내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은 8.7% 증가율로 가장 많이 늘렸으며, 또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105조 9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복지 100조원 시대에 걸맞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확충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3조 2천억원으로 늘리고, 셋째아이 대학등록금을 1학년부터 새로 지원하며,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규모도 9조 4천억원까지 확대합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소득하위 70% 어르신 중 대부분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전환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12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합니다. 장애인연금을 2배 인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5만 4천명까지 늘립니다. 농민을 위해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을 신설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차상위층 1만 가구에 대해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일과 복지의 연계도 더욱 튼튼히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등 복지전달체계도 개선하여 복지투자의 효과성을 높ی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산은 5.7% 늘어난 5조 3천억원을 편성하여 문화융성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천만 외래관광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관광콘텐츠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도입하고, 생활 속 문화공간과 여가캠핑장을 40개소 조성하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 사회보험료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영화, 게임, 음악 등 문화콘텐츠 개발제작과 해외진출 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별지원에서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4) 국민안전과 외교·안보를 강화하는 예산

내년 예산은 국민안전과 외교·안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정폭력·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외교·안보 역량도 든든히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내 고화질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며 피해자 보호·지원시설도 늘립니다.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90여곳 더 늘리고, 2천개 업소에 대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환경유해물질, 도시침수·산사태 등 재해와 생활안전에 대한 투자도 3조 원 수준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2조 3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확보하며 병 봉급을 15% 인상하는 등 복무여건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1조 1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정보망을 고치고,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는 등 정부 3.0도 추진합니다.

(5)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내년 예산은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되, 국민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첫째, 고위직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하위직의 경우에도 금년 물가상승률 수준인 1.7% 인상하였고, 업무추진비·국외여비 등 공무원의 업무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며 법령개정·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세출절감을 추진하고, 관행·전시성 사업을 정비하는 등 재정을 아끼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과정에서 최대한 국민과 소통하고, 부처간 협업을 하는 등 「국민·현장·협업」 중심의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2014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7,062억원 규모로 책정하여 민간자금이 재정투자를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요청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건전재정 기반확충」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약해진 맥박이 다시 쿵쿵 뛰고, 경제체질도 세계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일정이 촉박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 조속히 확정되어 새해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현 오 석**

02

2014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14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장 재정운용 방향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www.mosf.go.kr

제1장 2014년도 나라살림 종합

2 0 1 4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4

01

재정운용 여건

금년도 세계경제는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유로지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국 등 신흥국은 경기·구조적 요인 등으로 성장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둔화되는 모습이다. 2008년부터 지속되어 온 미국 양적완화의 축소와 국가부채 부각 등에 따른 일본경제의 불확실성 등도 세계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표 1-1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연간 %)

	세계	선진국	선진국			신흥국	중국	인도
			미국	유로	일본			
2013년	2.9	1.2	1.6	△0.4	2.0	4.5	7.6	3.8
2014년	3.6	2.0	2.6	1.0	1.2	5.1	7.3	5.1

자료 : IMF(2013년 10월)

우리 경제도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성장·고용 등 주요 경가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연평균 3.9% 수준 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지연으로 중소기업·서민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가계부채 문제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표 1-2 • 2014년 경제 전망

	2012년	2013년 ^o	2014년 ^o
경제성장률(%)	2.0	2.8	3.9
경상수지(억달러)	480.8	700	490
소비자물가(%)	2.2	1.3	2.3

자료 : 2014년 경제전망('13. 12. 27)

02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13년 본예산 대비 $\Delta 0.9\%$ 감소한 369.3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13년 본예산보다 $\Delta 0.9\%$ 감소하고 2013년 추경보다는 2.4% 증가한 369.3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Delta 3.8\%$ 감소한 243.7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기둔화에 따른 2013년 세수실적 부진,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5 → 11%) 등의 영향으로 2013년 본예산과 유사한 216.5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219.1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4.6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13년 대비 5.3% 증가한 125.6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1 • 2014년 총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		2014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총 수입	372.6	360.8	369.3	$\Delta 0.9$	2.4
▶ 예산	253.3	241.5	243.7	$\Delta 3.8$	0.9
(국 세)	(216.4)	(210.4)	(216.5)	(0.01)	(2.9)
일반회계	227.2	215.4	219.1	$\Delta 3.5$	1.7
특별회계	26.2	26.1	24.6	$\Delta 5.9$	$\Delta 5.7$
▶ 기금	119.3	119.3	125.6	5.3	5.3
(사회보장성기금) ¹⁾	(63.9)	(63.9)	(69.8)	(9.1)	(9.1)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3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4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 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 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를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 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2-2. 예산 수입 : 2013년 본예산 대비 △3.8% 감소한 243.7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회계 세입 : 2013년 본예산 대비 △3.5% 감소한 219.1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1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13년 본예산(208.9조원) 대비 0.2% 증가, 추경(202.9조원) 대비 3.1% 증가한 209.3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13년 본예산(18.3조원) 대비 △46.1% 감소, 추경(12.5조원) 대비 △21.1% 감소한 9.9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0.2% 증가한 209.3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은 경기둔화에 따른 2013년 세수실적 부진과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6%p 인상(5 → 11%)에 따른 국세수입의 지방세 전환(4.0조원) 등에 주로 기인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0.3% 증가한 179.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과 그 외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세외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13년 본예산 (18.3조원) 대비 △46.1% 감소한 9.9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산은·기은 등에 대한 매각계획 변경으로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이 △7.2조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14년 경상세외수입은 2013년 본예산(10.5조원) 대비 △1.3조원 감소한 9.2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 2014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		2014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합 계(Ⅱ)	227.2	215.4	219.1	△3.5	1.7
▶ 국세(Ⅰ)	208.9	202.9	209.3	0.2	3.1
내국세 ¹⁾	179.0	173.8	179.6	0.3	3.4
관세	11.0	10.3	10.6	△4.0	2.7
교통·에너지·환경세	13.0	13.0	13.5	3.7	3.7
교육세	4.8	4.8	4.5	△6.7	△6.4
종합부동산세	1.1	1.1	1.1	4.0	4.0
▶ 세외수입(Ⅱ)	18.3	12.5	9.9	△46.1	△21.1
주식매각수입	7.8	1.8	0.6	△91.7	△63.8
경상세외수입	10.5	10.7	9.2	△12.3	△14.0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 특별회계 세입 : 2013년 본예산 대비 △5.9% 감소한 24.6조원

2014년 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 본예산(26.2조원) 대비 △5.9% 감소, 추경(26.1조원) 대비 △5.7% 감소한 24.6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용자회수·부담금 등 자체세입으로 구성된다. 2014년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4.7% 감소한 7.2조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세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6.4% 감소한 17.4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 2014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		2014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합 계(Ⅱ)	26.2	26.1	24.6	△5.9	△5.7
국세(Ⅰ) ¹⁾	7.6	7.5	7.2	△4.7	△4.1
자체세입(Ⅱ) ²⁾	18.6	18.6	17.4	△6.4	△6.4

1) 주세·농어촌특별세 / 2)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용자회수, 수수료 등

참고 | 2013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① 부동산 세제 정상화, 벤처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창조경제 지원

- ▶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 ▶ '창업 → 성장·성숙 → 재투자'에 이르는 벤처·창업 생태계의 단계별 세제지원 법률 근거 완비
- ▶ 기업상속공제 확대
-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 ▶ 대·중소기업간 세액공제를 차등화 등 투자지원제도 재설계
- ▶ 시간제 일자리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② 서민·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민생안정 유도

- ▶ 근로장려세제(E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 ▶ 월세 소득공제 확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등 중산·서민층 주거지원 확대
- ▶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지속 적용

③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체계 합리화

-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 비과세·감면 정비(16개 일몰 종료, 16개 감면 축소)
- ▶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 ▶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과표1,000억원 초과 16% → 17%)
- ▶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 조정(3억원 → 1.5억원)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하향 조정(30만원 → 10만원)
- ▶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 과세 등 사각지대 해소

2-3. 기금 수입 : 2013년 대비 5.3% 증가한 125.6조원

2014년 기금 수입은 2013년 대비 5.3% 증가한 125.6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12.1% 증가한 52.0조원, 용자원금 회수는 $\Delta 1.4\%$ 감소한 23.4조원, 이자 등 기타수입은 2.1% 증가한 50.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용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2013년 7월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1.1 → 1.3%) 등으로 인해 2013년 대비 12.1% 증가한 52.0조원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회수하는 용자원금 회수규모는 2013년 대비 $\Delta 1.4\%$ 감소한 23.4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자산운용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2013년 대비 2.1% 증가한 50.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 2014년 기금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		2014년 (C)	증감률	
	당초(A)	수정(B)		C/A	C/B
합 계(Ⅰ+Ⅱ+Ⅲ)	119.3	119.3	125.6	5.3	5.3
사회보장기여금(Ⅰ)	46.4	46.4	52.0	12.1	12.1
용자원금 회수(Ⅱ)	23.7	23.7	23.4	$\Delta 1.4$	$\Delta 1.4$
이자수입 등 기타(Ⅲ)	49.2	49.2	50.2	2.1	2.1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용자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2013년 대비 3.8% 증가한 36.8조원,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8.6% 증가한 82.7조원, 계정성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21.0% 감소한 6.1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5 • 2014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		2014년 (C)	증감률	
	당초(A)	수정(B)		C/A	C/B
합 계(54개)	119.3	119.3	125.6	5.3	5.3
사업성 기금(44개)	35.4	35.4	36.8	3.8	3.8
사회보험성 기금(6개)1)	76.1	76.1	82.7	8.6	8.6
계정성 기금(4개)2)	7.7	7.7	6.1	△21.0	△21.0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2)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로 국회에서 확정된 총 64개 기금운용계획상의 기금수입(기금운용규모)은 515.4조 원이나 통합재정 관점의 총수입은 125.6조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정부 내부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 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한다.

둘째, 금융성기금 및 외평기금은 순수 재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54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총수입으로 본다는 것이다.

03

지출 규모

3-1 총지출 규모 : 2013년 본예산 대비 4.0% 증가한 355.8조원

2014년도 총지출은 355.8조원으로 2013년 본예산(342.0조원) 대비 4.0% 증가, 추경(349.0조원) 대비 2.0% 증가한 규모이다.

2014년 총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4.0% 증가한 355.8조원이다.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지출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예산지출은 250.8조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9%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7% 증가한 201.6조원, 특별회계는 $\Delta 0.2\%$ 감소한 49.2조원이다.

기금지출은 사회보험성기금 급여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2013년 본예산 대비 6.8% 증가한 105.0조원 수준이다.

표 3-1 • 2014년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		2014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총 지 출	342.0	349.0	355.8	4.0	2.0
▶ 예 산	243.6	247.6	250.8	2.9	1.3
일반회계	194.4	197.5	201.6	3.7	2.1
특별회계(18개)	49.2	50.0	49.2	$\Delta 0.2$	$\Delta 1.7$
▶ 기 금	98.3	101.4	105.0	6.8	3.6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 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제도단위: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3-2. 예산지출 규모 : 2013년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 250.8조원

2014년 예산지출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 250.8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7% 증가한 201.6조원, 특별회계는 $\Delta 0.2\%$ 감소한 49.2조원이다.

일반회계는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 예산 등에 중점 투자하여 2013년 본예산 대비 3.7% 증가한 201.6조원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본예산 대비 $\Delta 0.2\%$ 감소한 49.2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간 및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2013년 본예산 대비 지출증가율은 4.2%이다.

표 3-2 • 2014년 예산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		2014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 예산 지출	243.6	247.6	250.8	2.9	1.3
일반회계	194.4	197.5	201.6	3.7	2.1
특별회계	49.2	50.0	49.2	$\Delta 0.2$	$\Delta 1.7$
▶ 예산 순계	263.6	268.0	274.7	4.2	2.5

3-3. 기금지출 규모 : 2013년 당초 대비 6.8% 증가한 105.0조원

2014년 기금지출 규모는 2013년 당초 대비 6.8% 증가한 105.0조원으로 이 중 사회보장지출은 7.8% 증가한 30.8조원이다.

기금 사업비는 관광산업·농어민 지원 확대 등으로 2013년 당초 대비 6.9% 증가한 89.2조원이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 등을 반영하여 2013년 당초 보다 8.7% 증가한 47.2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2013년 당초 대비 0.1% 증가한 1.4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13년 당초 대비 6.8% 증가한 14.4조원이다.

표 3-3 • 2014년 기금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		2014년 (C)	증감률	
	당초(A)	수정(B)		C/A	C/B
합 계(54개) (사회보장지출 ¹⁾)	98.3 (28.6)	101.4 (28.7)	105.0 (30.8)	6.8 (7.8)	3.6 (7.3)
▶ 사업비	83.4	86.3	89.2	6.9	3.3
사업성 기금(44개)	37.5	40.3	39.2	4.7	△2.5
사회보험성 기금(6개) ²⁾	43.4	43.5	47.2	8.7	8.4
계정성 기금(4개) ³⁾	2.5	2.5	2.8	9.5	9.5
▶ 기금운영비	1.4	1.4	1.4	0.1	0.1
▶ 차입금이자상환	13.5	13.7	14.4	6.8	5.3

1)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지출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3)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1.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14년 통합재정수지는 13.5조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Delta 25.5$ 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2014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0% 수준(13.5조원) 흑자이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 추경 수준인 GDP 대비 $\Delta 1.8\%$ ($\Delta 25.5$ 조원) 적자로 예상된다. 이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최근의 경기회복세 뒷받침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향후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기울여 2017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균형수준인 $\Delta 0.4\%$ 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표 4-1 · 재정수지

(단위 : 조원)

구 분	2013년		2014년 (C)	증감	
	본예산(A)	추경(B)		C-A	C-B
▶ 통합재정수지(I)	30.6	11.8	13.5	$\Delta 17.1$	1.7
(GDP 대비, %)	(2.3)	(0.9)	(1.0)		
사회보장성기금 수지(II)	35.3	35.2	39.0	3.6	3.7
▶ 관리대상수지(I-II)	$\Delta 4.7$	$\Delta 23.4$	$\Delta 25.5$	$\Delta 20.8$	$\Delta 2.1$
(GDP 대비, %)	($\Delta 0.3$)	($\Delta 1.8$)	($\Delta 1.8$)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원금 소요(2003년~2006년까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장래 연금급여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시행 초기단계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증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4-2. 국가채무

2014년 국가채무는 2013년 전망치인 480.5조원(GDP 대비 36.2%) 보다 34.2조원 증가한 514.8조원(GDP 대비 36.4%)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국채 증가(27.7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증가(16.0조원) 등에 기인한다.

2014년 국가채무 전망치 514.8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3.2% 수준인 274.0조원이며, 나머지 46.8% 수준인 240.8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15년 이후 증가폭을 완화시켜 나아가 갈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구성된 자기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국민주택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황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2 • 국가채무

(단위 : 조원, %)

구분	2012년 결산	2013년			2014년 예산
		본예산	추경	전망	
▶ 국가채무	443.1	464.6	480.3	480.5	514.8
(GDP대비, %)	(34.8)	(34.3)	(36.2)	(36.2)	(36.4)
① 적자성 채무	220.0	229.3	245.2	246.2	274.0
일반회계 적자국채	148.6	157.2	173.1	172.9	200.6
(순 증)	(13.3)	(8.6)	(24.5)	(24.3)	(27.7)
공적자금 상환기금	45.7	46.0	46.0	47.0	47.8
지방정부순채무	18.7	18.4	18.4	18.5	18.0
② 금융성 채무	223.1	235.3	235.1	234.4	240.8
외평기금·채권	153.0	173.7	173.7	171.0	187.0
주택기금·채권	49.5	46.7	46.7	49.0	45.0
공자기금 융자계정	6.2	3.9	3.9	4.2	2.3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규모에 따른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개념인데, 이 비율이 일정하거나 감소한다면 국가채무 절대액이 증가하더라도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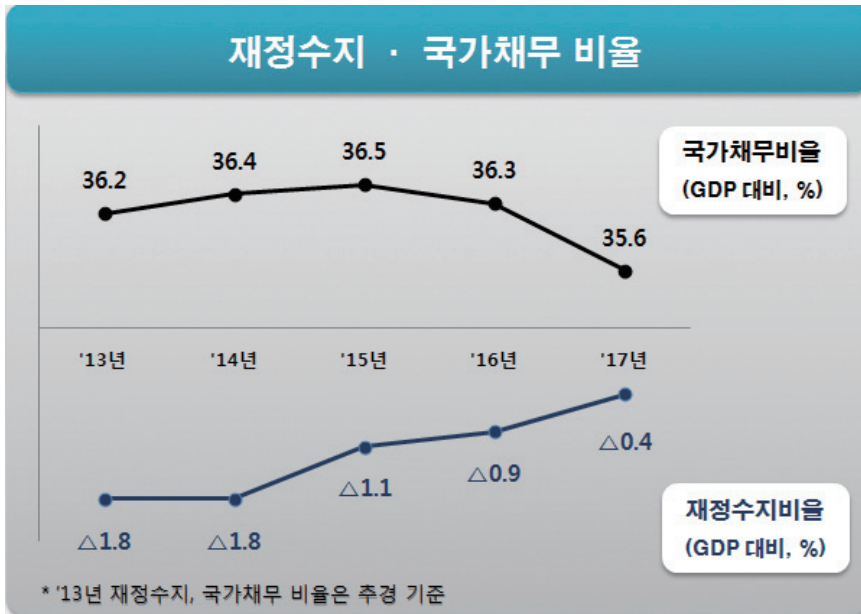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주요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미국 102.1%, 일본 218.8%, 독일 88.3%, 영국 102.4% 등이며, OECD 평균도 107.4%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4-3 • 국가채무/GDP(2012년 기준)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34.8	102.1	218.8	88.3	109.3	102.4	107.4

*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94 database(2013.12)

201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4%로 2013년 추경기준 36.2%에 비해 소폭 상승하나, 향후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에 따라 하락세를 보여 2017년에는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제2장 재정운용 방향

2 0 1 4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4

01

재원배분 방향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재정여력을 기반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빠르고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교과서적인 경기회복”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세계적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도 저성장 흐름이 계속되면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2014년 나라살림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내용면에서 금년 예산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①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 ② 일자리 창출, ③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④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⑤ ‘국민-현장-협업’ 중심의 재정운용 등 5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1-1.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와 수출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24.3조원(406.0 → 430.3조원)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3조원, 수출입은행·무역보험 수출금융을 10.2조원 확대하고, 1.1조원(민간투자 포함) 규모의 新성장산업(콘텐츠·의료 등)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 SOC 투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지방 소비세 전환율 확대(5 → 11%), 보육보조율 15%p 인상 등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5.4조원 수준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SOC 투자 규모도 4대강을 제외한 평년 수준(22.4조원)보다 확대(23.7조원)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로 실질 건설 투자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공약 투자규모를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였다.

창조경제 구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창조경제 타운 조성·1인 창조기업 지원 등 유망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였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중소형 전문병원의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신규 조성(총 500억원 규모)하고,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규모를 확대(1,000 → 2,000억원)하였다. 또한,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첨단산업화를 위해 종자개발 등 농업 R&D 투자를 확대(9,532 → 10,221억원)하고, ICT 융복합 시설 보급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1-2. 일자리 확충

장·노년층의 경험을 살리면서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고용률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청년 대상 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확산을 위해 스펙초월멘토링시스템(500명)을 신설하였다.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신설 60 → 90개소)하고,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신설(1,000명)·정년연장지원금 확대 등 중장년층 고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를 3만개 신설하고,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확대(900 → 2,000명)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33만명으로 대폭 확대(25.2 → 33.0만명)하였다.

근로방식 개편 지원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컨설

팅 지원을 확대하고,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교대제 개편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설비투자 비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60.1 → 66.1만명)하고, 경찰관(4,000명)·사회복지인력(1,177명) 등 공공부문 현장인력 채용을 확대하였다.

1-3.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충, 일을 통한 자활·자립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1회 5천원)도 폐지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171개소를 추가 확충하였다. 국가장학금 확대(2.8 → 3.4조원)를 통해 소득 2~6분위 대상으로 지원금을 연 22.5~180만원 증액하고, 셋째아이 대학등록금을 1학년부터 신규 지원한다. 어르신 소득 하위 70% 대상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통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본인부담금을 현재 연 94만원에서 연 최대 34만원 수준으로 경감해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행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12만명을 추가 보호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을 2배(월 10 → 20만원)로 확대하고, 장애인 심사·등록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류발급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일과 복지의 연계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1만 가구의 자산형성을 신규 지원(희망키움통장)하고, 취약계층에 ‘직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3만명(22 → 25만명) 확대할 계획이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등 예술인 복지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관광 이용권을 통합한 통합문화이용권을 도입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문화예술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예술인 중심으로 민간 예술지원 사업을 운영(문예기금으로 통합)하고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1,223 → 1,868억원)할 계획이다.

1-4.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4대 사회악·환경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외교·안보역량 강화와 정부 3.0 추진으로 든든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등 성·가정·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먹을거리 안전 투자를 대폭 확충(3,009 → 3,446억원)하였다. 폐슬레이트(석면) 지붕 철거지원 확대(1.5 → 2만 가구), 산업단지 화학물질 특수사고 대응단 신설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산사태 예방 투자를 확대(7,990 → 8,886억원)할 계획이다.

국방 핵심전력 확보(방위력 개선 10.1 → 10.7조원), 복무여건 개선(병 봉급 15% 인상), ODA 확대(2.1 → 2.3조원) 등 안보·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정보 개방 확대·수요자 중심 행정정보망 구축 등 정부 3.0 추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1-5.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국민-현장-협업」 중심 재정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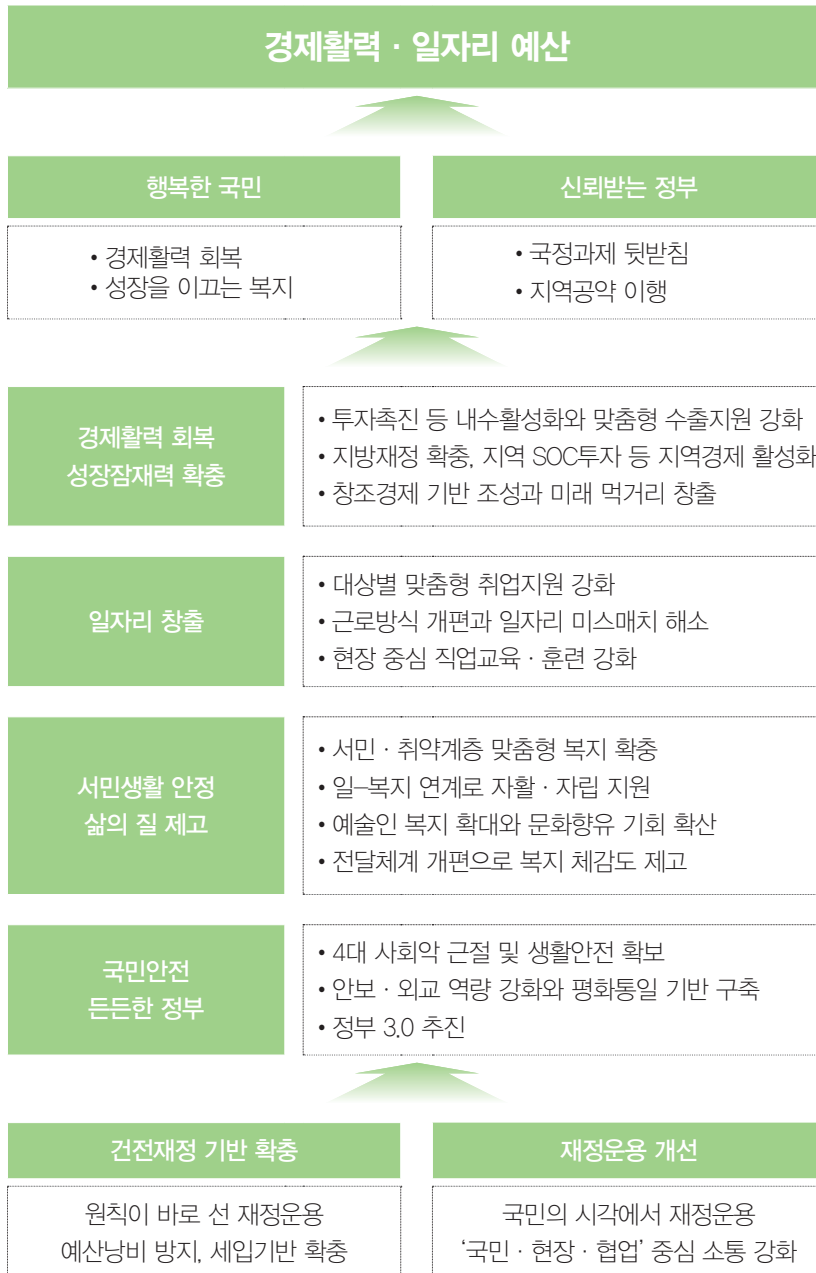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 매고, 지출절

감 노력을 강화하였다.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반납형태)하고, 하위직 보수 인상도 1.7% 수준으로 최소화하였다. 업무추진비(전년대비 $\Delta 8.8\%$), 국외여비(전년대비 $\Delta 3.8\%$) 등 공무원 업무경비도 대폭 절감하였다.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전력수요 관리방식 개선(보조 \rightarrow 규제)·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 재정절감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제행사·경기대회 예산을 요구 대비 대폭 절감 편성하는 등 관행·전시성 낭비사업을 정비하였다.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행복한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방(13.7~8월)’을 운영하여 얻은 2,338건의 아이디어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협업기구를 구성하여 R&D, ICT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등 부처 간 협업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14년 예산의 중점



02

중점 추진과제

1.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 1-1. 투자촉진 · 수출역량 강화
- 1-2. 지역경제 활성화
- 1-3.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2. 일자리 창출

- 2-1.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2-2. 근로방식 개편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2-3. 현장 중심 직업교육 · 훈련 강화
- 2-4.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3.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 3-1. 서민 ·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 3-2. 일과 복지 연계로 자활 · 자립 지원
- 3-3.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 3-4.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4.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 4-1. 4대 사회악 근절 및 생활안전 확보
- 4-2. 안보 · 외교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 4-3. 정부 3.0 추진

5.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 5-1.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 5-2.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강화
- 5-3. ‘국민 · 현장 · 협업’ 중심 재정운용 개선

제2부
2014년도 나라살림

1.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1-1. 투자촉진·수출역량 강화

①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강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보험 및 보증 등 정책금융을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 융자지원(7,500 → 9,150억원)을 확대하고, 민간금융을 원활히 이용토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보증도 공급한다.

✦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10.2조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 및 기업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를 96.6조원에서 102.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무역 및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보험의 인수 규모를 4조원 확대(211 → 215조원) 한다.

✦ 콘텐츠, 의료 등 新성장산업 투자 펀드 1.1조원 조성

민간의 잉여자금이 신성장산업 등에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펀드출자를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우선, 의료 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문화 콘텐츠 제작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펀드를 0.5조원 조성한다. 또한, 해외인프라 투자, 농식품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건설업, 농수산업 등 해외진출 투자펀드도 0.6조원 조성한다.

② 기업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

+ 산업단지 투자환경 조성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을 유기적으로 연결 하는 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확대(544 → 577억원)한다. 또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후공단 재정비사업 지원을 확대(43 → 275억원)하고,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문화공간을 확충(130 → 416억원)한다.

+ 외국인투자기업·U턴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자금을 대한 직접 지원(Cash Grant)을 확대(140 → 195억원)한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전용 상담 데스크 운영 및 투자보조금을 지속 지원하고, 영세기업의 국내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해 U턴기업 집적화 센터를 설치(신규, 57억원)한다.

+ 경제특별구역 지원으로 기업투자 인프라 확충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공사 중인 인천·부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의 적기 완공을 지원(161억원)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부지조성(1,182억원) 및 표준공장 완공(183억원)을 추진하여 경제특별구역의 정상 운영을 지원한다.

③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수출역량별 1:1 맞춤형 지원강화

수출 역량별(수출초보, 수출유망,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글로벌 브랜

드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279 → 380억원)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B2C)의 해외 진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속 지원(210억원)한다.

✦ 농수산물식품 및 건설플랜트 산업 해외진출 확대

친환경·안전 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위생관리, 안전성 인증, 자금지원 등을 확대한다. 특히, 농수산물식품 수출 유망시장인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스타식품 발굴(신규, 60억원) 등 중국시장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확대(38 → 49억원)하고, 인프라 건설 분야의 개도국 진출 확대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 지원을 확대(30 → 50억원)한다.

✦ FTA 확대에 대응,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확대

FTA확대로 인한 비관세장벽 강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확대(107 → 133억원)하고, 중소기업간 수출 컨소시엄 구축 지원(30 → 40억원) 및 대기업의 해외 인프라 활용 지원(10 → 30억원)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확대 한다.

1-2. 지역경제 활성화

①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

✦ 향후 10년간 연평균 5.4조원 수준 지방재정 확충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복지부담 확대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3년에 국세인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의 5%를 지방에 이전하고 있는 것을 2014년에는 11%로 확대한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

으로 전환하여 지방여건에 맞는 비과세·감면 등 실질적인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5%p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의 복지부담을 완화한다.

✦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지원

동북아 오일허브(울산신항) 추진을 위한 투자 확대(350 → 647억원) 및 마리나 사업 지원(23 → 151억원) 등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폐광지역에 자생력을 갖춘 지역별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백, 삼척, 문경 등 폐광지역 6개 시·군에 9개 사업을 추진(100 → 217억원)한다.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을 위한 R&D, 마케팅 및 인력양성 패키지 지원 사업 규모 확대(2,300 → 2,528억원)한다.

✦ 산·학협력·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확대(1,437 → 2,031억원)하여 대학의 강점분야와 지역의 산업수요 등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 규모를 확대(51 → 57개)하여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② 지역 SOC 투자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적정 수준의 SOC 투자규모 유지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대폭 증가된 SOC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투자규모를 정상화해 나간다. 2014년에는 2013년 본예산 24.3조원 대비 △2.5%가 감소된 23.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을 제외한 평년수준(4대강 사업 제외 '08~'13년 평균 22.4조원)보다는 확대된 규모이며, SOC 투자규모 정상화를 보완하기 위해 R&D·문화분야 등의 시설투자 확대,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 국가기간망 철도·혼합구간 도로 조기완공 지원

도로는 도심부 교통 혼잡구간 조기완공을 위해 투자를 확대(4,249 → 6,005억원)하고, 적기 착공을 위해 토지보상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철도는 경부·호남 고속철도 등 주요 국가기간망 완공 및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등 국책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구체화·타당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 숙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1-3.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① 창조경제 기반 확충

✦ 창업 및 재기가 가능한 생태계 조성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신규로 500억원을 출자한다.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상에 창조경제 타운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42 → 140억원)한다. 또한, 모바일 앱(App)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46 → 61개) 및 R&D 지원(100 → 150억원)을 확대한다.

✦ 신시장·신산업 개척을 위한 신규투자 강화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로 105억원을 지원한다. 실패가능성은 있지만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도 발굴하여 지원(신규 41억원)한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팀의 창업사업화를 위해 신규로 218억원을 지원한다.

✦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35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가급 유무선 네트워크, 대용량 콘텐츠 처리 플랫폼 등 ICT 핵심기술 확보 지원(130 → 293억원)한다.

② 미래 먹거리 창출

✦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의료 및 크루즈 관광 지원을 확대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총 500억원의 중소형 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100억원을 시드머니로 출자하고, 총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200억원을 출자한다.

✦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등 미래 산업으로 육성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을 전략적으로 중점 육성하고, 축산·과수·원예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하는 첨단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1차 산업(농축산업)에 2차(가공·식품), 3차 산업(유통·관광)을 융복합하는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촌 성장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공공 승마시설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충 등 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보강한다. 특히, 말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말 전문병원, 인공수정 센터 등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단위 말산업 정착 및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 문화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 조성·창작공간 확대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문화콘텐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수익률이 낮아 민간투자가 부진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문화콘텐츠 관련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창작공간인 콘텐츠코리아랩을 서울 1개소, 지방 2개소 설립한다.

③ 대학 경쟁력 강화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2013년 수준(554 → 556억원)으로 추진하고, BK21(Brain Korea 21)과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의 후속사업인 BK21Plus 사업(2,741 → 2,974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이 향후 리더급 연구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을 확대(3,220 → 3,488억원)하여 추진한다.

+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

우수 창업인프라를 갖추고 청년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추가로 선정(18 → 23개 대학)하여, 창업공간 제공,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청년창업거점기관을 넓힌다. 한편, 청년들의 기업을 정신을 높이기 위해 대학내 창업동아리 지원(400 → 1,000개)과 창업교육 지원대학(30 → 50개)도 확대한다.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대 구축(24 → 424억원)한다. 올해 NCS 개발은 신규 추진규모를 2013년 수준으로 유지(250 → 241개)하고, 286개 분야는 보완작업을 진행한다. 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은 2013년 55개 분야에서 2014년엔 195개 분야(누적 250개)로 확대한다. 또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특성화전문대 육성 사업으로 개편(2,540 → 2,696억원)하여 추진한다. 특성화전문대는 2014년 78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로프로젝트(31억원) 사업을 통해 해외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국제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④ 전통·취약부문 체질개선

✦ 중소기업 취약부문(인력·판로) 지원 확대

우수인력유치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주말·야간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선(先)취업-후(後)진학 프로그램을 확대(1,100 → 1,250명)하고, 중소기업 장기재직(5년 이상) 핵심인력에게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공제제도」를 신설한다.

대형유통망 진입이 불가능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제품판매장도 확대(8 → 19개) 설치된다.

✦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 융자지원을 확대(7,500 → 9,150억원)하고, 골목수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새단장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에 기반한 물품구매 및 진단지 활용지원 등 「ICT 전통시장 지원」을 신설(30억원)한다.

✦ 뿌리·기계산업 등 취약부문 제조업 지원 확대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248 → 312억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노후설비 교체·유통 촉진을 위한 중고기계 매매장터를 신설하고 서비스체계 구축 지원을 추진(30 → 50억원)한다.

2. 일자리 창출

2-1.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청년: 보다 쉽고 빠른 노동시장 진입 유도

해외진출 희망 청년에게 멘토링·훈련 등을 지원하고 해외취업·창업·인턴·봉사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185 → 237억원)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을 위해 1,050개 기업에 221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스펙이 아닌 직무중심의 채용시스템 확산을 위해 핵심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여 500명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설치지원을 60 → 90개소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단가를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들의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로 일하기 센터를 10개소 추가 확대(120 → 130개소)한다.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3개소 신설하고, 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중소/대기업 지원금 단가(만원): ('13) 월 40/월20 → ('14) 월60/월30)

✦ 중장년: 오래 일하고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장년층의 제2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일자리 희망 센터를 25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를 신설(1,000명)한다. 또한,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지원을 확대(534 → 869억원)하여 정년 60세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 **어르신: 경험 많은 실버세대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를 2013년 25만명에서 2014년 33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직 퇴직자를 활용하는 일자리를 확대한다.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를 3만개 신설하고,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9백명 → 2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경륜있는 시니어 과학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정보분석 및 과학관 큐레이터 기회제공을 확대하는 등 고경력·퇴직과학기술자를 청소년 과학교육 지원 등에 활용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광역단위로 노인취업 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노인 일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취업교육(老-老케어, 호텔리어 등)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 개설 및 콜센터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 **장애인: 더불어 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작업환경 조성지원을 22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근무 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400명에서 480명으로 확충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1.5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음성증폭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2-2. 근로방식 개편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패키지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 시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을 100개소에서 190개소로 확대한다.

✦ 장시간 근로개선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생산성 제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을 450개소 지원한다. 또한, 교대제 개편 등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월 90만원 지원한다.

✦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스마트워크 활성화 지원

공공부문의 스마트 워크센터를 1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비용을 신규지원(2개소)한다.

✦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지원

일하고 싶은 작업장 환경조성을 위해 헬스장, 샤워시설 등 근로복지 시설 설치를 100개소에 대해 신규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내 폐사업장을 재활용하여 문화공간을 확보한다. 구인·구직자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의 일자리 정보망 통합을 추진하고, 구직자에게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2-3.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 현장 수요 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취업연계 강화

산업현장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채용연계형 훈련과정인 지역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전국적으로 확대(2개소 → 22개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인력양성 종합컨설팅을 제공(1,300개 기업)하고, 사내 트레이너 육성을 지원(1,300개 기업)하여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 수요가 증가하는 바이오·플랜트·서비스 직종에 대한 훈련인원을 1.5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중소기업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60%까

지 확대하고, 회계 등 고급 과정에 대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핵심직무 과정 사업을 대폭 확대(3 → 5만명) 운영한다.

✦ 공공훈련기관 역할강화 및 직무중심 훈련기반 마련

전문 공공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 대학에 여성캠퍼스를 구축하고, 청년(+500명)·베이비부머(+700명)·여성(+500명)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기관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수 훈련기관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양질의 훈련기관 양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2-4.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 공공 현장인력 채용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아동·청소년 보호, 성폭력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을 4,000명 증원하고 복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 인력 1,177명을 확충하는 등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 현장인력에 대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직접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

직접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 지원한다(66.1만명).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17.4 → 20.0만명)하고, 단기·임시적 성격의 일자리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공공부문에서 장기간 근로개선을 선도

연가사용 활성화, 야근문화개선, 초과근로수당 축소 등을 통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공공부문부터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등으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3-1.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영유아

+ 산모·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치료센터를 설치(신규, 3개소)하고, 경증 소아 환자가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진료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신규 10개소)한다. 또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상도 확대(42 → 135천명)된다.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 폐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예방접종대상 항목을 폐렴구균(2014년 하반기 시행)까지 포함한 총 13종으로 확대하고, 5천원씩 내던 본인부담금도 무료로 전환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및 전면무료접종 실시로 만 12세 이하 약 600만 어린이가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예방접종 대상감염병(13종) :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폐렴구균

+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171개소 추가 확충하고, 우수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매월 평균 362만원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대(1,700 → 1,800개소)

한다. 그리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품질 인증을 위한 평가를 확대(15,990 → 18,660개소)하고, 사전 예고없는 사후 점검도 강화(400 → 2,320개소)한다.

학생

+ 저소득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247개소 확대(3,742 → 3,989개소)한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기초학습지원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도 9개소 확충(211 → 220개소) 한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2조 7,750억원 → 3조 4,575억원)하여, 등록금 전액지원(450만원) 범위를 기존 소득 기초~1분위에서 기초~2분위까지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연간 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위주의 돌봄 서비스를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등 추가 돌봄 필요 학생에게 밤 10시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고 1,008억원 등을 투입하여 돌봄교실 9,600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총 17,000실의 돌봄교실에서 약 33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년·어르신

+ 기초연금 도입으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및 빈곤완화

현 세대의 심각한 어르신 빈곤 완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된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도입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70%가 지급받고

있는 월 9.7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은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대체된다. 지급 대상은 노인인구 증가, 수급률 제고 등에 따라 2013년 405만명에서 2014년 447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어르신 빈곤 및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예산은 2013년 3.2조원 대비 2조원이 늘어난 5.2조원이 편성되었다.

✦ 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4년 7월부터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된다. 이전에는 경증 치매 어르신의 경우 요양보험 인정점수 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 중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절차를 통해 선정된 분들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자들은 인지기능 자극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지원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목욕보조 등을 지원하는 돌봄종합서비스의 지원 규모는 2013년 3.2만명에서 2014년 4.1만명으로 확대된다.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기본서비스의 지원 규모도 2013년 17.2만명에서 2014년 20만명으로 확대된다.

✦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등 모든 필수 의료항목은 물론 사회적 수요가 높은 고가의 최신 의료 등 일부 비필수 항목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소요 재원(2014~2017년간 총 7조원)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국고에서도 일부 지원한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작하여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도 현행 3단계에서 2014년부터 7단계로 세분화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 → 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향(400 → 500만원)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 강화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하여 지급대상 확대 및 임대료 지원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주택바우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소득·가구원수·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2013년에 비해 지원대상 가구는 73만 가구에서 94.4만 가구로 확대되고, 가구당 월평균 지원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1.7조원 확대(7.7 → 9.4조원) 지원한다.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도 인상(다가구 매입 임대 : 호당 85 → 90백만원)한다.

②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제로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 지원 내용 등을 차별화하여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개편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3년 83만 가구에서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결과로 수급 탈락·급여 감소가 발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는 이행기 급여를 지원하여 제도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을 보장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를 약 12만명 추가 보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

저소득층(85만여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1,770개)에 대한 LED 조명기기를 추가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전력효율향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246 → 356억원)한다. 또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강화를 통해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411 → 596억원)한다.

장애인

✦ 장애인 연금 2배 확대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현행 월 9,7만원에서 2014.7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현재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 수준(약 327천명)에서 70%(364천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65세 이상이 되어도 국민연금 수급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연금 대폭 인상을 통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가족의 부담도 경감된다.

✦ 장애인 심사 관련 '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 신규 추진

기존에는 장애인 등록 신청인이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가 신규로 추진된다(49천건, 21억원). 동 서비스의 신규 추진으로 서류 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더는 동시에, 불필요 서류 발급 방지, 심사기간 단축 등의 부수적인 효과들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5.4만명으로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2013년 4.8만명에서 2014년 5.4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대상도 2013년 0.2만가구에서 2014년에 1만가구로 확대한다. 장애아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연 320시간에서 연 4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2014년 4.2만명 수준으로 늘렸다.

농어업인

➤ 농수산 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한 농어업 경영 안정 강화

겨울철 논에 청보리·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 ha당 40만원의 이모작 직불금을 신규 지급한다. 2014년부터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종전 80만원/ha에서 90만원/ha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육지로부터 8km 이상이면(제주본도 제외) 어업인 가구당 연 49만원의 조 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 농어민을 재해와 노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 재해공제 보장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하며,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을 71개 품목에서 7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연간 최대 45.9만원으로 인상하고, 고령농 전용 농지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시행한다.(농지담보가치 10%p 인상, 최초가입비 폐지, 상환이자율 인하, 가입연령 요건 완화 등)

➤ 도서민 교통편의 제공 및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내항여객선을 차량과 함께 이용하는 도서민(제주본도 제외)에게 차량 운임의 20%(국비 10%, 지방비 10%)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지역의 노후 폐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마을에 LPG 공동저장탱크(9개소)와 영농 폐비닐 수거시설(1,000개소) 설치를 국가에서 시범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무공영예수당 인상

6.25 전쟁 및 월남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 ·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월 15 → 17만원)과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월 21~23 → 23~25만원)을 각각 월 2만원씩 인상한다.

+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지원 확대

국가유공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구분하여 전세자금은 최대 40백만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 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신설 배치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50명을 신설 배치하고 결혼이민자 멘토링 서비스 신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시범조사 등 수요자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 북한이탈 여성 ·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북한이탈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 상담 ·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시설을 지원한다.

3-2. 일과 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 차상위 1만 가구 자산형성 신규 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을 취업·창업 수급자(32 → 37천 가구) 뿐만 아니라 차상위 가구(신규 10천 가구)까지 확대한다.

* 일하는 수급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탈수급을 요건으로 정부지원 등 매칭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 지원

+ 상담·사례관리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인원을 확대(22 → 25만명)하고,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사전 상담단계를 신설하고 참여수당을 신규로 지급(10만원)한다. 아울러, 희망리본사업* 지원 인원을 2013년 10천명에서 2014년 12천명으로 확대한다.

*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취업을 등)에 따라 수행기관에 성과예산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지원요건(월평균 임금 기준): ('13) 130만원 → ('14) 135만원 이하

3-3.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 사회복지직 공무원 1,177명 신규 총원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1,177명 확충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기초연금·기초생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신규 수급자 발굴·지원

등을 위해 행정업무 보조인력 3,487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부처간 정보 공유·연계 강화, 관리 기능개선 등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를 통해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방지를 강화한다. 복지 행정서비스 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도시지역 6곳, 농촌지역 4곳에서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일자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 민간복지 자원활용 강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이를 국가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식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봉사대를 20개소 추가 지원(총 60개소) 할 예정이다 아울러, 풀뿌리 복지공동체 확산 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3-4.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① 예술인 복지 확대 및 창작활동 지원 강화

➤ 예술인 복지 2배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복지 사업을 2배 확대(100억원 → 200억원)한다. 예술인들의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창작역량 강화 지원자를 2013년 35백명에서 2014년 69백명으로 확대한다. 예술인들이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 피

해를 입었을 때 법률자문 및 소송을 지원하고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의 치료·재활을 돕기 위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4억원 → 10억원). 또한, 예술인 약 10만명에게 공연장·박물관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예술인 패스를 발급한다.

+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민간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선별적·소액다수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공연예술단체는 누구나 대관료·스텝·홍보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민간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1,223억원 → 1,868억원)하여 민간공연예술단체 공연 비용이 평균 20% 낮아진다. 모든 예술인이 공연 종합연습장을 시간·기간제 형태로 저가 대여할 수 있도록 예술디딤센터 3곳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122억원 → 162억원).

②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

+ 통합문화이용권 신규 도입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층 150만명에게 문화·여행·스포츠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쓸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을 발급한다.

+ 생활속 문화공간 및 여가캠핑장 조성

지역주민들의 여가·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20곳을 조성하고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10개소)을 조성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 창작기반을 제공한다. 최근 여가활동으로 각광받는 캠핑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120억원 → 135억원).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청소년 체육활동과 노인복지시설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선진형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확대(9개소 → 19개소)하고 국민체력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인문학 향유 기회 확대

국민들이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공인문학 강좌 지원을 확대(3.5억원 → 63.5억원)하고 우수도서 보급 지원도 확대(89억원 → 152억원)한다

4.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4-1. 4대 사회악 근절 및 생활안전 확보

① 4대 사회악 근절

✦ 성폭력전담 수사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아동·여성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 체감도 제고를 위해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2,500 → 3,100명, 67 → 91억원) 등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28 → 63개소, 18 → 22억원) 및 통합지원센터(33 → 34개소, 126 → 142억원)를 확대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 부설 긴급피난처 1개소를 신설

(17 → 18개소)하고,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을 6개소 증설(13 → 19개소)하며, 보호시설 퇴소 후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주거시설 40호를 증설(156 → 196호)한다.

➤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체육·예술교육, 프로젝트 인성교육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교내에 소화소(100만 화소) CCTV설치를 확대하고, 노인봉사인력을 배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교육교부금)

➤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투자 강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100 → 188개소)하고,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영세한 유통매장 2,500개소에 신규 보급한다. 방사능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검사보조인력을 충원한다.

② 환경 유해물질·교통·재해 등 생활안전 확보

➤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농어촌 노후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국고 보조를 확대 (144 → 288억원)하여 철거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진단을 확대(25 → 36억원) 시행한다

산업단지 특수사고 대응단 설치(신규, 203억원) 및 사고현장 분석 차량 추가 도입(2대) 등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유해물질 취급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 실시(신규, 1,000개소 40억원)한다.

✦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수도권 전철구간의 선로전환기·소방안전시설·구축물 시설개량은 확대(2,297 → 2,600억원) 지원한다. 항만 신·증설에 따른 관제장비와 어선 좌초 예방을 위한 항로 표지 신설 및 노후 장비 적기 교체 등을 통한 항행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 도시침수·산사태 등 집중 호우 피해 예방

태풍·집중 호우 시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빗물저류시설 등 도시침수방지시설 투자를 확대(5,268 → 5,937억원)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2,722 → 2,950) 투자한다.

4-2. 안보·외교 역량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① 안보 대응능력 강화

✦ 미래 戰場 대비 방위역량 강화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적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첨단 무기 도입과 성능개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기초 연구인프라, 핵심·원천기술 개발, 민·군 기술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활성화 및 방산수출 증대를 도모한다.

✦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장병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병영생활 전반의 근무여건을 향상한다. 생활경비 지원 강화를 위해 병봉급을

15% 인상하고, 장병들의 입맛과 건강을 배려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인상한다. 또한, 휴한기 근무에 대비하여 기능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훈련용 외피와 방한복도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식당·목욕탕·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함께, 여가생활을 위한 풋살장·문화센터 등 체육·문화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 적정 군수지원 능력 보강

방탄헬멧 보급률 향상(25.8 → 28.6%), 침낭지급 확대(29 → 38천매) 등 전방 일선부대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작전 및 경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안정적인 수리부속 확보와 정비유지를 지원하는 등 적정 군수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② 외교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구축

✦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교역량 강화

북핵문제 진전,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보호, 공공외교 및 일자리 외교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전략동맹 등 주변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의 심화와 더불어 미래의 전략지역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자원개발의 신흥국에 대한 외교관계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지속확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1조원에서 2.3조원으로 확대하고, 우리의 발전경험, 기업 및 인력 진출과 연계한 ODA를 중점적으로 발굴·지원한다. 특히, 해외 청년일자리 파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기업 진출과 연계한 대개도국 차관 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들의 신흥시장 확대에도 기여한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개발의 대표적 브랜드인 새마을운동 국제 확산을 통해 개도국 자립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평화통일기반 구축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기존의 남북문제 등으로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년 수준인 1.1조원 규모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제의한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2014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금년도 8월에 준공되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한다.

4-3. 정부 3.0 추진

+ 공공정보 개방 확대로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교통·지리정보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여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개방 확대에 1,18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민간 개방을 통하여 스마트레저,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행정정보망 구축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일 등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지방세·공과금 등을 한 곳(www.wetax.go.kr)에서 쉽게 조회하여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간단 e납부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

아파트 관리사무소 용역입찰 등 민간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농·식품 및 수산분야에

IC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영농과학화를 촉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14 → 24 억원)한다.

5.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5-1.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 법령개정 ·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항구적으로 재정절감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퇴직수당에 대한 국가부담금 비율을 2014년 3월부터 전액(공단부담금제외)에서 퇴직수당의 60%로 변경한다. 다만, 유·초·중등 법인은 의무교육, 고등학교 평준화, 재정결합 보조금 지원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전력수요 관리방식 개선(보조 → 규제) 등을 추진하고 그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운용되던 기술료를 세입조치(약 2,000억원 규모)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복지급여 수급자 심사체계 강화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관행 · 전시성 낭비사업 정비

국제행사 · 경기대회는 부대행사 간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외한다.

✦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다부처에 걸쳐 있는 R&D, ICT 등 관련 예산을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 맞게 이관 및 통폐합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관련 사업구조 단순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일원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 조세지출-예산사업 중복지원 조정·연계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과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보조금·융자금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원을 방지한다. 조세지출-예산사업이 상호 보완적인 정책조합을 이루는 경우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통합 성과평가 방안을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 정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성과미흡 등 외부지적사업은 예산 축소

성과미흡 사업, 보조사업 평가결과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감축 등을 추진하고, 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업 중 구조조정 필요 사업은 선별·축소한다.

5-2.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강화

✦ 3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부터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억제하여 3급 이상의 고위직은 전년수준으로 동결(반납형태)하고 하위직의 보수는 인상하되 인상 폭을 1.7%에 그치도록 하였다.

✦ 공무원 업무추진비와 여비 절감

정부의 각종 행사나 관련부처 회의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절감한다. 전 부

처 공통적으로 △10% 절감원칙을 적용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업무추진비 예산은 전년에 비해 △179억원(△8.8%)이 감소하였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국제행사, 국제회의의 참석 등을 억제하도록 국외여비 예산도 축소하였다.(△84억원, △3.8%)

5-3.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재정운용 개선

+ 국민과 소통하는 예산을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

일반국민, 정책고객,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행복한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방」을 개설하여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주택·취업·사병복지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예산편성 시 활용하였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의 집행현장 방문, 지자체 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정책 일선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예산편성 시 참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 부처 간 협업으로 세출절감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부처 간 협업 기구를 구성하여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과 예산안 조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부처간 칸막이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0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	
	본예산 (A)	추경		B-A	증가율
총 지출	342.0	349.0	355.8	13.8	4.0
1. 보건·복지·고용	97.4	99.3	106.4	9.0	9.3
2. 교육 (교부금 제외)	49.8 (8.7)	49.9 (8.8)	50.7 (9.8)	0.9 (1.1)	1.9 (12.9)
3. 문화·체육·관광	5.0	5.1	5.4	0.4	7.7
4. 환경	6.3	6.5	6.5	0.2	2.5
5. R&D	16.9	17.1	17.7	0.9	5.1
6. 산업·중소·에너지 (중소기업)	15.5 (6.6)	16.7 (7.9)	15.4 (7.0)	△0.1 (0.4)	△0.9 (5.9)
7. SOC	24.3	25.0	23.7	△0.6	△2.5
8. 농림·수산·식품	18.4	18.9	18.7	0.4	2.0
9. 국방	34.3	34.5	35.7	1.4	4.0
10. 외교·통일	4.1	4.1	4.2	0.1	2.3
11. 공공질서·안전	15.0	15.2	15.8	0.8	5.1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55.8 (20.3)	56.2 (20.7)	57.2 (21.6)	1.4 (1.3)	2.6 (6.3)

* 2013년 본예산 대비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2 0 1 4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4

01

R&D 분야

1-1. 재정지원 방향

2014년 R&D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7.7조원 수준이며, 2013년 대비 5.1% 증액 편성하였다. 2014년에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정부 R&D 투자를 정부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어려운 세입여건과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등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R&D 분야에는 꾸준히 투자할 예정이다. 2014년 R&D분야 총지출 규모는 17조7,428억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하였고,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4.0%)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 확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산업 전반에 융합·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형 연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생활 체감형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표 1-1 • R&D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c/a)
	본예산 (a)	추경		
합 계	168,777	171,471	177,428	5.1
기초·나노	20,840	21,556	24,839	19.2
에너지·환경	24,606	24,701	25,341	3.0
우주항공·생명	43,475	44,276	47,098	8.3
기계·제조·공정	16,345	16,483	16,904	3.4
정보·전자	24,575	25,443	26,002	5.8
인력양성·장비구축 등	38,935	39,012	37,244	△4.3

➤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양적 확대보다 투자의 전략화·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사업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정부 R&D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투자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정부 예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 R&D 예산을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할 것이다.

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역량 강화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연구 분야에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 기초연구 투자비중 : (2013년) 35.4% → (2014년) 37.2%

기초연구 분야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전반적인 국가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R&D 예산 중 기초분야 연구의 비중을 올해 37.2%까지 확대한다.

연구자에게 창의적·도전적인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 등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기술의 융·복합화와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화된 소규모 집단 연구도 지속 지원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 등 대규모 집단연구 역시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기초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에 대한 지속적 연구지원 등 기초연구의 협력 및 성과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표 1-2 • 기초연구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c/a)
	본예산(a)	추경		
합 계	12,821	13,221	14,633	14.1
개인기초연구지원	8,125	8,225	8,326	2.5
집단연구지원	1,295	1,295	1,240	△4.2
기초과학연구원지원	1,880	1,880	2,017	7.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751	1,051	2,100	179.6
글로벌프론티어	770	770	950	23.4

✦ 거대과학분야 투자 확대 및 연구장비 내실화

미래지향적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형 연구장비와 인프라는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 (2013년) 800억원 → (2014년) 2,350억원

기초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발사체, 가속기 등과 같은 대형 연구장비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거대과학 분야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창출되기 어려운데 반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커서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 조기개발('21년 → '20년)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달 탐사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착수할 것이다. 한국형발사체 조기개발을 통해 우주핵심기술을 조기에 자립화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과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이온가속기 건설예정지인 대전의 신동·둔곡지구에 대한 부지매입 및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엑스포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도룡지구를 기초과학 연구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설계에 착수할 것이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2015년 완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중입자 가속기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필요한 대형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되, 불필요하게 연구장비를 중복구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장비 구축의 적절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다.

표 1-3 • 거대과학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c/a)
	본예산(a)	추경		
합 계	2,749	3,376	5,133	86.7
한국형발사체개발	800	1,227	2,350	193.8
정지궤도위성개발	654	654	1,018	55.7
4세대 방사광가속기건설	850	1,050	1,200	41.2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145	145	65	△55.2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 및 실증	300	300	500	66.7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신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의 결합, ICT와 SW 등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신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 창조경제 관련 투자규모(R&D) : (2013년) 56,489억원 → (2014년) 65,645억원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창업이 쉽게 되고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화에 중점을 둔 R&D 지원을 강화한다.

단일분야에 대한 지원보다는 융합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과 ICT 융합으로 기존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 또한, 범부처 R&D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도모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CT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 차세대 미디어(UHD, 스마트TV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5G)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Giga Korea 사업 등을 통해 ICT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표 1-4 · 창조경제 실현계획 대상사업 전략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c/a)
	본예산(a)	추경		
합 계	56,489	59,108	65,645	16.2
창업 생태계 조성	4,193	4,223	4,794	14.3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2,361	2,659	3,640	54.2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24,942	26,285	28,969	16.1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8,645	8,791	9,649	11.6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15,243	15,884	17,145	12.5
창조경제 문화 조성	1,104	1,265	1,449	31.3

✦ 질병예방, 재난·재해 대응, 안전 등 국민행복 기술 개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 R&D 투자 활성화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국민안전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투자규모 : (2013년) 5,355억원 → (2014년) 6,228억원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여 R&D 투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편리한 삶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R&D 투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치안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대비, 편익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민행복 구현을 뒷받침할 것이다.

아울러, 사후복구 중심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예측·예방기술부터 사후 대응을 포함한 전주기적 투자 패러다임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 1-5 · 국민안전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c/a)
	본예산(a)	추경		
합 계	762	762	1,046	37.3
식품 등 안전관리	177	177	245	38.4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	74	74	115	55.4
물관리연구	235	235	304	29.5
방재실험시설구축	45	45	103	128.9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18	118	158	33.9
사회문제해결형 실용화 기술개발	-	-	80	순증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강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 중소기업 R&D(중소기업청) : (2013년) 8,387억원 → (2014년) 8,850억원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 대기업 →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정부 R&D 사업 중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높은 사업을 중점 지원할 것이며,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촉진,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패키지형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것이다.

표 1-6 · 중소기업 R&D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c/a)
	본예산(a)	추경		
합 계	7,099	7,299	7,518	5.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448	2,448	2,470	0.9
산·학·연협력기술개발	1,389	1,389	1,458	5.0
창업성장기술개발	1,314	1,314	1,414	7.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166	1,316	1,336	14.6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782	832	840	7.4

02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14년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5.4조원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한 수준이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7.0조원으로 전년대비 5.9% 확대하였다. 수출 역량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FTA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비수출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등 수출역량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거점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산업단지 및 경제특별구역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국내 · 외 기업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고, 설비투자 자금 직접 지원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 · 보증 · 보험 등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82 → 95조원)하고, 창업, 기술,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안정망을 확충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문화관광연계형 시장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높인다.

✦ 에너지 효율화를 지속추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강화

전력난 등에 대응하여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체질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및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층·농어촌지역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 지원을 확대한다.

표 2-1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c/a)
	본예산(a)	추경		
합 계	155,199	166,980	153,777	△0.9
산업진흥고도화	72,595	78,476	75,855	4.5
무역 및 투자유치	6,255	6,955	5,910	△5.5
에너지 및 자원개발	45,454	43,654	40,137	△11.7
산업금융지원	14,932	21,732	15,078	1.0
산업기술지원	11,185	11,385	12,037	7.6
산업중소기업일반	4,778	4,778	4,759	△0.4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신시장·신산업 개척 및 육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중소기업·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활력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2013년) 72,595억원 → (2014년) 75,855억원

주요·연계거점 산단(국가·일반·농공)을 대상으로 R&D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경제 구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로

봇산업 R&D 혁신과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집적화된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 및 산업기술거점기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강화한다.

청년의 창의성과 기술의 산실인 대학을 창업기지화 함으로써, 기술창업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 發기술창업의 요람인 창업선도대학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자 발굴 → 창업교육 → 창업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민·관 공동으로 창업기획사를 통해 독창적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육성하는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2013년 9월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성장사다리 구축과 관련한 예산도 대폭 확충하였다.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생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의 융자 지원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을 지속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은 ICT융합 확산, 서비스 향상 등으로 소비자가 다시찾는 시장으로 육성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내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공동기숙사 설치를 보조한다. 또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공용시설 및 시험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표 2-2 • 산업진흥·고도화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72,595	78,476	75,855	4.5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544	544	577	6.1	
창업선도대학	402	402	508	26.4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	-	50	순증	
World Class 300프로젝트 지원	550	550	647	17.6	
시장경영혁신지원	674	747	696	3.3	
산업단지 환경조성	110	110	230	109.1	
뿌리산업경쟁력강화 (R&D, 비R&D)	197	197	258	31.0	
지역특화산업육성 (R&D)	1,303	1,303	1,674	28.5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실물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활성화·수출촉진 등에 집중 투자하고, FTA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반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 (2013년) 6,255억원 → (2014년) 5,910억원

대외 불안요인 확대 등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예비수출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현지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 더불어 대·중소기업 협력 방식의 무역촉진단 파견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수산식품 및 건설·플랜트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FTA 확대에 따른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수출 초기 중소기업의 해외거점 확보를 위해 수출인큐베이터를 추가 설치(17 → 21개소)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수준 제고를 위해 FTA 정보제공 확대와 활용역량 확충 등 FTA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표 2-3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6,255	6,955	5,910	△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56	2,156	2,115	△1.9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417	517	514	23.3	
중소·중견기업수출 경쟁력강화	340	340	406	19.4	
수출인큐베이터	71	71	82	15.4	
통상협력국내대책추진 지원	56	56	106	89.4	

+ 산업금융지원 부문

설비투자 유도 등을 통한 경기 회복세를 적극 시현하기 위해 융자, 보증, 보험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 (2013년) 14,932억원 → (2014년) 15,078억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투자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한다.

첫째, 정책자금 융자는 창업 초기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성장기반자금을 확대한다.

둘째, 신용보증의 과도한 운용은 민간금융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운용하되, 1,500억원 출연을 통해 특별보증을 신설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에 시장안정유동화보증(6.4조원)을 신규지원하여 경기민감 업종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창조경제특별보증 2.0조원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및 중장기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셋째, 매출채권보험도 10.0조원에서 14.0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위험을 흡수하여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자기보호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2-4 • 산업금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14,932	21,732	15,078	1.0	
신성장기반자금	6,350	9,350	8,350	31.5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0	1,300	1,500	50.0	
매출채권보험 출연	1,180	2,280	1,022	△13.4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은 대폭 강화한다.

☞ (2013년) 45,454억원 → (2014년) 40,137억원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UAE 유망광구, 셰일가스개발 등 해외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취약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민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기업의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내실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부하관리기기 보급, 에너지절약 홍보 등 수요조정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저소득층 등에 보일러 교체, 고효율 에너지기기 설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등을 확대 지원하는 등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표 2-5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45,454	43,654	40,137	△11.7	
에너지관리공단지원	328	328	479	45.6	
해외자원개발(용자)	1,300	1,300	2,006	54.3	
광물자원공사출자	2,700	1,800	2,600	△3.7	
유전개발사업출자	3,200	2,200	1,700	△46.9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411	411	671	63.0	
LPG소형저장탱크보급	43	43	70	62.8	
도시가스공급배관(용자)	620	620	740	19.4	

+ 산업기술지원 등 부문

중소기업 역량별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창조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 (2013년) 11,185억원 → (2014년) 12,037억원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업력5년 → 7년 이하)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전용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준비된 기술창업자 육성을 위한 전용R&D를 확대한다.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산·학·연과제(첫걸음기술개발)의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대학 내 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하여 공동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마을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전문엔젤투자사가 보육·투자하고 정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시장형 창업기술개발(이스라엘식 프로그램)운영을 확대한다.

서비스분야의 R&D 사업화 성공 제고를 위해 멘토링 지원 등 개발 이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지역거점별 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형 융·복합과제 발굴·지원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등 연계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의 수요처 및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를 통해 지원대상을 늘리는 한편, 대학·연구기관과 수요처(대기업 등)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선순환 투자 모델을 확산한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시장성 분석을 통해 R&D 기획을 지원하며, 기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체 역량향상에도 힘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채용시, 인건비, 능력개발비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확대(3,000 → 3,500억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표 2-6 · 산업기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11,185	11,385	12,037	7.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166	1,316	1,336	14.6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3,000	3,300	3,500	16.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448	2,448	2,470	0.9	
산·학·연협력기술개발	1,389	1,389	1,458	5.0	
창업성장기술개발	1,314	1,314	1,414	7.6	

03

SOC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그 동안 집중투자로 SOC 스톡이 어느 정도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SOC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운영 효율성 제고에 주력한다.

+ SOC 투자 수준의 정상화

SOC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정상화하되, R&D·문화 등 여타 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SOC 투자규모를 보완한다.

+ 투자 내실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도로는 완공사업과 혼잡구간을 중점 지원하고 첨단교통체계(ITS) 구축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철도는 경부·호남 고속철도 등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추진하고 설계기준 합리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 안전·재해예방 관리 강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재난관리 차원에서 다목적·홍수 조절 댐을 적기에 완공하고 국가·지방하천도 지속 정비한다.

✦ 지역경쟁력 강화 지원

권역별 항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노후산단 재생을 지속 지원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 한다.

✦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교통망의 적기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청사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세종시 건설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한다.

✦ 글로벌 허브항만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개척 지원

항만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항만 투자를 지속하고, 물류비절감과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에 대해 투자한다. 또한 크루즈산업, 선박평형수 관리 산업, 해운·항만 해외시장개척 등 해운항만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표 3-1 ·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c/a)
	본예산(a)	추경		
합 계	243,024	250,261	236,895	△2.5
도로	86,451	91,667	84,695	△2.0
철도·도시철도	68,591	69,141	68,032	△0.8
해운·항만	15,091	15,291	15,052	△0.3
항공·공항	820	830	1,008	22.8
물류 등 기타	19,167	19,449	20,151	5.1
수자원	27,315	27,694	23,830	△12.8
지역 및 도시	16,297	16,447	15,137	△7.1
산업단지	9,292	9,742	8,991	△3.2

3-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도로부문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도시부 교통혼잡구간 조기 해소를 위해 집중 투자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위주 지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2013년) 86,451억원 → (2014년) 84,695억원 (2.0% 감소)

교통혼잡해소를 위해 토지보상비 우선 지원을 통해 사업 집행여건을 개선하고, 부산외곽순환, 대구외곽순환, 양재-기흥, 안산-일직, 성서-지천 고속도로 등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음성-충주, 충주-제천, 냉정-부산 간 고속도로는 금년 중 완공할 계획이다.

* 토지보상비 : (2013년) 8,078억원 → (2014년) 13,931억원

국도는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도심부 교통 혼잡구간 위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주변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공사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 혼잡구간 투자 : (2013년) 4,249억원 → (2014년) 6,005억원

* 국도 완공사업 : (2013년) 32개 → (2014년) 45개

한편, 국민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병목·위험도로 등의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도로교통체계(ITS) 신규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표 3-2 • 도로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a)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A+B)	86,451	91,667	84,695	Δ2.0	
▶ 국토교통부(A)	84,771	89,344	83,912	Δ1.0	
- 고속도로	16,234	16,234	14,766	Δ9.0	
- 국 도	39,971	41,811	37,832	Δ5.4	
- 민자도로	9,858	11,058	14,148	43.5	민자고속도로 지원
- 지자체도로	8,424	9,077	6,740	Δ20.0	국지도, 광역도로 등
- 국도 유지관리	10,284	11,164	10,426	1.4	
▶ 안전행정부(B)	1,679	2,322	782	Δ53.4	

+ 철도부문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전국 주요거점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 고속철도 투자를 확대한다. 일반철도에 대한 투자는 국가 주요시책과 연계한 사업과 K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 (2013년) 60,830억원 → (2014년) 61,800억원 (1.6% 증가)

경부고속철도(2단계 대전·대구도심철도 통과구간), 호남고속철도(서울~광주 구간)사업은 2014년 개통과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사업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지원한다.

일반철도는 수송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선전철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속철도 노선과 일반철도 노선을 연결하여 인천공항(2014), 포항(2014) 등으로 고속철도 서비스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군장산단, 울산신항 등 물류거점인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를 확충한다.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주변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광역교통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용산~문산 사업은 잔여구간인 공덕~용산 구간을 2014년말에 완전 개통하고, 일부 구간을 우선 개통한 수원~인천 사업은 잔여구간을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진접선, 별내선,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이 착수된다.

운영 중 철도노선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과 일반철도의 시설개량비를 증액 하였다. 또한, 철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교통광장 구축 및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철도와 타 교통수단 간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철도 시설개량 : (2013년) 2,732억원 → (2014년) 3,050억원

표 3-3 •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60,830	61,379	61,800	1.6%	
고속철도	16,600	16,600	17,928	8.0%	경부·호남·수도권고속철도
일반철도	26,450	26,350	26,354	△0.4%	KTX 연결선 확충
광역철도	3,616	3,666	3,135	△13.3%	3개 신규사업 착수
철도운영	14,163	14,763	14,383	1.6	철도 안전 강화

✦ 도시철도부문

완공사업 증가로 사업예산이 감소 추세이나, 도시교통권역에 추진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한다.

☞ (2013년) 7,761억원 → (2014년) 6,233억원 (19.7% 감소)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대구지하철 3호선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반영하고, 서울9호선 2-2단계, 부산1호선 연장, 대구1호선 연장, 우이~신설 경전철 등의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하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인천 2호선 사업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도시철도 이용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 부평구청까지 개통된 서울7호선을 석남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착공하고, 부산 사상~하단, 부산 1호선 양산선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착수하여 추진한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운행중인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지하철 부채 문제를 해당 지자체가 책임성 있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 간 합의에 따른 부채상환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표 3-4 • 도시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7,761	7,761	6,233	△19.7	
도시철도건설지원	6,533	6,533	5,884	△9.9	서울9호선 2단계 등
도시철도경영지원	1,228	1,228	349	△71.6	지하철 부채상환지원 등

+ 해운·항만부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허브 항만 인프라 지원을 지속하고, 해운항만분야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투자를 확대한다.

☞ (2013년) 15,091억원 → (2014년) 15,052억원 (0.26% 감소)

글로벌 허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항신항, 인천신항 등 신항만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물류비 절감과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부산신항의 동북아 글로벌 허브항으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부산신항 항로 17m 증심 준설을 지속 추진하고, 서쪽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47만㎡를 조성하며 송도준설토 투기장이 2014년 준공될 수 있도록 투자한다. 원활한 對중국 무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신항 진입도로 개설, 영종도 2단계 투기장 건설 등 인천항에 투자를 확대하고 평택당진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2-1단계)를 추진하는 등 투자를 지속한다.

그리고, 주요항 및 일반항에 대해서도 지역별 물동량 특성에 적합한 거점항만으로 개발하고, 항만시설 기능보강과 안전강화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항만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크루즈산업, 선박평형수 관리 산업, 해운·항만 해외시장 개척 등 해운항만분야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소득증가에 따른 해양레저 수요 충족과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마리나 항만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표 3-5 · 해운 · 항만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a)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합 계	15,091	15,052	△0.3	
신항만 개발	4,890	5,053	3.3	
주요항 및 일반항	7,397	7,030	△5.0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1,460	1,541	5.5	
해양인력 양성 및 관리	344	395	14.8	
해양교통 및 안전관리	1,000	1,033	3.3	

+ 항공 · 공항부문

영남권 신공항 · 제주공항 확장, 울릉도 · 흑산도 소형공항 개발 등 공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항공안전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13년) 820억원 → (2014년) 1,007억원 (22.8% 증가)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감안하여 영남권 신공항 건설 · 제주공항 확장 등 공항개발을 위한 입지선정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영남권 신공항은 지역간 합의를 전제로 공항개발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오지 불편해소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울릉도 · 흑산도 소형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착수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도 집중 투자한다. 제1항공교통센터(인천) 관제기능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대구)를 추가로 건립(2014년 착공, 120억원)하고, 노후화 된 제1항공교통센터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1차 사업(2009~2013년) 추진 결과 사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항공전문인력양성 2차 사업(2014년~2018년)도 지속 추진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3-6 · 항공·공항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820	830	1,007	22.8	
공항개발조사	5	15	45	800.0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	30	순증	기본계획수립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16	16	120	650.0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	34	34	233	589.4	
항공전문인력양성	50	50	43	△14.0	

+ 물류 등 기타 부문

체계적인 해양영토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택시연료 다변화를 위한 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

☞ (2013년) 19,167억원 → (2014년) 20,151억원 (5.1% 증가)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해양관측망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해양영토관리 기반을 구축하며,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해 북극항로 개척 및 남·북극 관련 국제사회 역할 강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등을 지속 지원하며, 수도권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등을 통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개선 등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택시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감차 예산을 확대하고, 택시운송 연료 다양화와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CNG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표 3-7 • 물류 등 기타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a)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합 계	19,167	20,151	5.1	
물류정책	183	277	51.3	
국토교통연구개발	4,014	4,117	2.5	
국토교통정보화	873	956	9.5	
건설정책지원	339	334	△1.4	
광역교통정책	1,878	2,506	33.4	
자동차및교통정책	1,004	669	△33.3	
건설기술정책	150	158	5.3	
대중교통육성	636	593	△6.7	
국토교통행정지원	2,912	3,034	4.1	
해양정책및영토관리	1,219	1,421	16.6	

✦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과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2013년) 27,315억원 → (2014년) 23,830억원 (12.8% 감소)

산업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지속 지원한다. 구미권 국가산단 공업용수, 수도권2단계 광역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등 4개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홍수예방 및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국가하천정비사업을 확대하여 국가하천 개수율(제방 정비율)을 2013년 64%에서 2014년 70%로 높일 계획이다.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성덕댐 및 부항댐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존 댐의 안전성 증대를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도 지속 지원하여 대청댐 및 안동댐의 비상여수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표 3-8 • 수자원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27,315	27,694	23,830	△12.8	
용수공급	387	387	422	9.1	신규사업 4개
수자원정책	214	224	241	12.7	물포럼 행사 준비 지원
댐건설	4,721	5,090	3,843	△18.6	성덕댐, 부항댐 준공
하천관리	21,993	21,993	19,324	△12.1	

+ 지역·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도시재생사업, 초광역권 개발, 세종시 건설, 새만금 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진입도로 등을 지원한다.

☞ 지역·도시 : (2013년) 16,297억원 → (2014년) 15,137억원 (7.1% 감소)

☞ 산업단지 : (2013년) 9,292억원 → (2014년) 8,991억원 (3.2% 감소)

쇠퇴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종합적 기능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선도지역 11개소(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9개소)를 선정하여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 등 초광역권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등 주민지원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13년 9월 12일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이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새만금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광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2014년말 정부기관 이전 완료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건립, 인근 간선교통망 및 주변 도

시와의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문화·복지 편의시설 구축 등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차질없도록 재정지원을 적극 뒷받침한다.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기반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시설을 지원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과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공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표 3-9 • 지역·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 지역 및 도시 부문	16,297	16,447	15,137	△7.1	
– 세종시 건설	8,413	8,413	6,975	△17.1	
– 지역개발	4,451	4,601	4,450	–	
– 도시정책	1,383	1,383	1,523	10.1	
– 국토정보관리	1,225	1,225	1,122	△8.4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	825	825	883	7.0	
– 새만금개발청	–	–	185	순증	
▶ 산업단지 부문	9,292	9,742	8,991	△3.2	
– 산업단지 진입도로	7,941	8,391	7,629	△3.9	
– 지역거점조성지원	1,306	1,306	1,079	△17.4	
– 산업단지 지원	45	45	282	526.7	노후공단재정비 등

04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14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8.7조원으로 2013년 18.4조원 대비 2.0% 증가한 수준이다. 농어민 직접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역점을 두고 지원한다.

+ 농어가 직접지원 강화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직불금, 재해보험료 등 직접지원을 강화한다. 쌀직불금, 이모작직불금, 수산직불금 등 농수산업 직불금의 지원대상 및 단가를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재해보험, 농지연금, 안전공제보험 등 농어민 맞춤형 안전망을 확충한다.

+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

우수 종자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ICT 기술을 농어업에 접목하는 등 우리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한다. 축산 · 원예 · 양식 등 시장 개방에 민감한 품목은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첨단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의 체질개선,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 한 · 미FTA 보완대책의 규모를 대폭 확대(2.6 → 3.2조원)한다. 또한, FTA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 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직접 보전할 계획이다.

✦ FTA 확대를 해외시장 개척 기회로 적극 활용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식품이 중국 등 해외 유망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수출전략지역 선정 및 전략품목 발굴, 물류전진기지 건설, 공동마케팅 체계 구축, 구매자금 지원 등을 역점 추진하면서, 고품질 신선식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비료 구매 지원, 생태순환형 양식기술 확산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한다.

✦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수급 안정시스템 구축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통계열화를 촉진하고, 사이버거래·직매장 등 다양한 방식의 신 유통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도매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유통구조 혁신과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양파·무를 신규 비축하는 등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단기적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농수산물관측을 통한 수급상황 예측력을 강화하고 정가·수의거래 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유도한다.

표 4-1 •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본예산(a)	추경		
합 계	183,862	188,501	187,468	2.0
농업·농촌	139,239	142,931	141,738	1.8
수산·어촌	18,342	18,619	18,993	3.5
임업·산촌	18,941	19,112	19,014	0.4
식품업	7,339	7,839	7,723	5.2

4-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농업·농촌 부문

ICT융복합, 6차 산업화 등을 통한 농업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고, 농촌지역의 성장 활력 제고를 중점 지원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유통개선과 재해대응 시스템 확충에도 역점을 둔다.

☞ (2013년) 139,239억원 → (2014년)141,738억원 (1.8% 증가)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직불금, 재해보험료 등 직접지원을 강화한다. 겨울철 논에 청보리·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 ha당 40만원의 이모작 직불금을 신규로 지급하며,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종전 80만원/ha에서 90만원/ha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쌀소득 변동직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18.8만원/80kg으로 인상 적용한다.

한편,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 재해공제 보장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하며, 배와 단감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연간 최대 45.9만원으로 인상하고, 고령농이 보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보유농지 그대로 영농도 계속할 수 있는 농지연금의 경우, 농지담보가치 10%p 인상, 최초가입비 폐지, 상환이자율 인하, 가입연령 요건 완화 등 연금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한다.

한·미 FTA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한·미 FTA 보완대책 재정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2.6조 → 3.2조)한다. FTA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원예·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FTA를 농수산물 수출 저변 확대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수출전략형 중자산업 육성을 위한 Golden Seed(황금씨앗) 프로젝트,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 등의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FTA 발효 이후 국내 농수산물 공급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생산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의 일정부분을 직접 보전하는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 지원금 등도 대폭 확대한다.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통계열화를 촉진하고, 사이버거래·직매장 등 다양한 방식의 신 유통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도매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유통구조 혁신과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또한, 국내산 양파·무를 신규 비축 품목으로 도입하고 기존 비축 품목(고추, 마늘, 배추)도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단기적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농수산물관측을 고도화하여 수급상황 예측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가격 결정방식을 경매위주에서 정가·수의거래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농수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유도한다.

사육환경 개선, 우량 축종 개발을 통한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사업과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지원한다. 또한, 조사료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료 생산 품질 개선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친환경 축산업 진흥을 위해 정화처리 시설 개보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신규로 지원하며, 살처분 보상금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1차 산업(농축산업)에 2차(가공·식품), 3차 산업(유통·관광)을 융복합하는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촌 성장 활력을 제고한다. 6차 산업화 지구, 6차 산업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해 6차 산업 선도 모형을 전국에 확산하며, 6차 산업화 우수 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 물류시스템, 판매촉진 활동지원 등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공공 승마시설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충, 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보강한다. 특히, 말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말 전문병원, 인공수정 센터, 말 경매장 등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단위 말산업 정착 및 발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재해 대응능력을 개선한다. 농지 정리 및 생산시설 현대화, 영농 규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표 4-2 · 농업·농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139,239	142,931	141,738	1.8	
쌀 고정직불금	6,984	6,984	7,740	10.8	
이모작 직불금	-	-	906	순증	
폐업 지원금	300	300	1,027	242.3	
농업 재해보험	2,016	2,016	2,701	34.0	
농업인 재해공제	368	368	397	7.7	
농지연금	237	237	339	43.4	
농산물 비축지원	6,215	6,615	6,711	8.0	
도매시장 현대화	465	465	757	62.7	
말산업 육성	98	98	201	105.4	
수리시설 확충	10,693	11,493	11,865	11.0	

+ 수산·어촌부문

수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유통구조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복지 증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2013년) 18,342억원 → (2014년) 18,993억원 (3.5% 증가)

글로벌 수산물 소비수요에 대응하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광어, 우럭 등의 수출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우량품종 개발, 사료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섬 등의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외해양식·갯벌양식 등 신개념 생산시스템 확립을 위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추진한다.



외해 양식시설 전경

외해 양식시설 내부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고, 적조·해파리·태풍 등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유해생물 구제, 어선원 보험 등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지원한다.

또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수산물 가격안정과 위생적인 물류환경 구축을 위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과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 활성화 등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국가·지방어항의 건설 및 관리, 어촌어항 관광기반의 조성 등 어촌과 어항 개발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표 4-3 · 수산어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포함			
합 계	18,342	18,619	18,993	3.5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605	605	1,078	78.2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057	3,087	3,204	4.8	
어촌·어항 개발	3,439	3,656	3,737	8.7	
수산경영	2,327	2,327	2,492	7.1	

+ 임업 · 산촌 부문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며,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13년) 18,941억원 → (2014년) 19,014억원 (0.4% 증가)

체계적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 · 숲가꾸기를 내실화하고, 우량묘목 생산 확대, 임도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 탄소상쇄제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임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경영지원, 기술지도를 확대하여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기계 · 장비보급 확대를 통해 목재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목재칩 지원을 통해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아 ·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시설 ·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새로운 휴양 · 여가수요 반영을 위해 산림휴양시설을 보완하여 산림을 국민 건강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 치유인프라를 확충한다.



유아 산림교육



산림 치유교육

산림재해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림생태계의 효율적 보전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인력 확대 및 장비를 지원하고,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4 •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포함			
합 계	18,941	19,112	19,014	0.4	
사방사업(사방담 포함)	2,722	2,722	2,950	8.4	
임도시설	1,354	1,354	1,442	6.5	
조림	858	858	990	15.4	
산림병해충방제	703	703	846	20.3	
산림휴양등산증진	161	161	210	30.4	

+ 식품업 부문

고부가 친환경·안전식품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중국 내수시장 등 해외유망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2013년) 7,339억원 → (2014년) 7,723억원 (5.2% 증가)

고품질·안전 먹거리를 중심으로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생산·물류, 판매 등 각 단계별 수출 진흥 전략을 수립, 추진하며, 품질·위생관리, 안전성 인증 등을 강화함으로써 친환경·안전 농수산물식품의 해외수출을 촉진한다. 수출용 원료구매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농수산물식품 모태펀드 내에 수출기업 전용 특수목적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의 농수산물식품업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며 특히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식품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식품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올해 착공하여 본격 조성을 시작한다. 수출 유망시장인 중

국시장 선점을 위한 물류전진기지 또한 착공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을 포함한 유망시장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 맞춤형 컨설팅, 스타식품 발굴, 현지 안테나숍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표 4-5 •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포함			
합 계	7,339	7,839	7,723	5.2	
우수농식품구매지원	3,871	4,171	4,200	8.5	
해외시장 개척	280	280	331	18.2	
식품외식종합자금	1,303	1,303	1,303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34	134	348	159.3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54	54	73	35.7	
국가인증, 표준, 기능성평가	82	82	89	8.4	

05

보건 · 복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2014년 보건 · 복지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06.4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에는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저출산 · 고령화 등에 대비한 투자,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 맞춤형 복지안전망 확충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 저출산 · 고령화 등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강화

보육 ·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속 지원하는 한편, 국 · 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등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한다. 기초연금 도입,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한다.

➤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출 효율성 제고 및 복지체감도 제고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등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부적정 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한다. 지자체 복지직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한다.

표 5-1 •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c/a)
	본예산(a)	추경		
합 계	974,029	992,927	1,064,254	9.3
기초생활보장	85,604	87,761	88,310	3.2
취약계층지원	16,269	16,849	17,987	10.6
공적연금	331,382	331,382	364,031	9.9
보육·가족·여성	45,200	45,431	57,156	26.5
노인·청소년	44,643	45,034	65,619	47.0
노동	138,906	140,362	144,588	4.1
보훈	43,152	43,152	44,576	3.3
주택	174,733	187,679	182,343	4.4
사회복지일반	6,824	7,062	7,440	9.0
보건의료	19,506	20,247	19,451	△0.3
건강보험	65,131	65,131	69,665	7.0
식품의약품안전	2,679	2,835	3,087	15.2

5-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2013년) 85,604억원 → (2014년) 88,310억원 (3.2%증가)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을 차별화한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초생보 수급자는 2013년 83만 가구 수준에서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증가할 전망이다. 제도 개편 결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행기 급여를 지원하여 제도 개편 전 급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를 약 12만명 추가 보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을 취업·창업 수급자(32 → 37천 가구)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신규, 10천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위해 희망리본사업 지원 인원을 2013년 10천명에서 2014년 12천명으로 확대한다.

표 5-2 ·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85,604	87,761	88,310	3.2	
생계·주거 급여	31,594	31,783	32,524	2.9	최저생계비 5.5% 인상
의료급여	42,478	43,934	44,366	4.4	143 → 145만명
희망키움통장	435	435	483	11.1	32 → 47천 가구
희망리본사업	223	223	277	24.3	10 → 12천명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노인빈곤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노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수를 대폭 확대한다. 치매노인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두배로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 기초연금 지급(기초노령연금) (2013년) 32,097억원, 월 9.7만원 → (2014년) 52,001억원, 월 최대 20만원 (62%증가)

☞ 노인일자리(복지부) (2013년) 2,353억원, 23만개 → (2014년) 3,052억원, 31만개 (29.7% 증가)

☞ 장애인연금 (2013년) 3,440억원, 월 9.7만원 → (2014년) 4,660억원, 월 20만원 (35.5% 증가)



현 세대의 심각한 어르신 빈곤 완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된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도입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70%가 지급받고 있는 월 9.7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은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대체된다. 지급 대상은 노인인구 증가, 수급률 제고 등에 따라

2013년 405만명에서 2014년 447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어르신 빈곤 및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 기준 2013년 23만개의 일자리 사업 수를 2014년에는 31만개로 늘렸다. 특히, 재능활용일자리 사업을 3만개 신설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2014년 7월부터 신설·도입할 계획이다. 이전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활동프로그램 등 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13년 월 9.7만원에서 2014년 7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현재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63% 수준(약 327천명)에서 70% 수준(약 364천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2013년

추경수준인 14.5천명으로 지속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4.8 → 5.4만명). 주·야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응급안전서비스 대상 가구도 2천 가구에서 1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표 5-3 • 취약계층 및 노인·청소년 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60,912	61,883	83,606	37.3	
기초노령연금	32,097	32,097	52,001	62.0	월 9.7 → 월 최대20만원
노인일자리	2,353	2,443	3,052	29.7	23만개 → 31만개
장애인연금	3,440	4,660	1,220	35.5	월 9.7 → 월 2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3,829	3,829	4,285	11.9	4.8 → 5.4만명

+ 공적연금 부문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 급여 지급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 (2013년) 331,382억원 → (2014년) 364,031억원 (9.9%증가)

4대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연금별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도 확대 된다. 수급자수는 국민연금 349 → 382만명, 공무원연금 34.8 → 36.9만명, 군인연금 8.4 → 8.5만명, 사학연금 4.8 → 5.2만명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표 5-4 • 공적연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331,382	331,382	364,031	9.9	
국민연금 급여지급	128,300	128,300	145,814	13.6	349 → 382만명
공무원연금 급여	95,266	95,266	102,365	7.5	34.8 → 36.9만명
군인연금 급여	26,549	26,549	28,042	5.6	8.4 → 8.5만명
사학연금 급여	20,264	20,264	22,627	11.7	4.8 → 5.2만명

✦ 보육 · 가족 · 여성 부문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 (2013년) 49.4% → (2014년) 65.9%
- ☞ 가정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 (2013년) 48.0% → (2014년) 64.3%
-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 (2013년) 96개소 → (2014년) 171개소
-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2013년) 월12만원 → (2014년) 월15만원
- ☞ 아이돌보미 수당 : (2013년) 5천원 → (2014년) 5.5천원/시간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경제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영유아 및 여성에 대한 지원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도록 하는 핵심 연결고리이다.

정부는 보육 관련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기준보조율을 +15%p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171개소 신규 확충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17만명이 넘는 아동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

또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월 3만원 인상(월12 → 15만원)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확대(15,990 → 18,660개소)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수당을 10%(5 → 5.5천원/시간) 인상하고, 아이돌보미 4대 보험료 고용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표 5-5 • 보육·가족·여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45,200	45,431	57,156	26.5	
영유아보육료	25,944	25,944	33,292	28.3	국고보조율 인상
가정양육수당	8,810	8,810	12,153	38.0	국고보조율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65	165	353	114.3	171개소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964	964	1,356	40.7	월12 → 15만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운영	67	67	86	29.0	15,990 → 18,660개소
아이돌보미 지원	673	715	799	18.7	수당 10%인상 4대 보험료 지원

+ 노동 부문

근로유인형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여성·청년·중장년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 (2013년) 138,906억원 → (2014년) 144,588억원 (4.1%증가)

구직급여를 확대(35,375억원 → 38,602억원)하여 재취업활동 기간의 생활안정 및 노동 시장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보수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5,384억원 → 5,552억원)

여성의 경력단절방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확대(신규설치 60개소 → 90개소)하고,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신규로 도입(1,000여 기업)한

다. 또한 중장년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 중장년 아카데미를 신설(1,000명)하고,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자율적 고용연장 지원을 강화(534억원 → 869억원)한다.

표 5-6 • 노동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138,906	140,362	144,588	4.1	
취업성공패키지	1,661	1,696	2,171	30.7	취약계층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384	5,384	5,552	3.1	사회보험료지원
고용보험기금	64,832	65,591	70,549	8.8	구직급여 지원
산재기금	47,654	48,051	47,155	△1.0	산재급여 지원
임채기금	3,002	3,002	2,865	△4.6	체당급 지급
장애인기금	2,472	2,472	2,579	4.3	장애인고용촉진
근복기금	800	900	1,114	39.3	근로자복지지원

+ 보훈 부문

국가유공자 희생·공헌에 따른 보상금을 4%인상 지급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월 2만원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 확대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노후생활도 지원한다.

☞ (2013년) 43,152억원 → (2014년) 44,576억원 (3.3%증가)

2014년에 보상금을 4%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희생의 정도에 따라 추가 배려가 필요한 상이 1급 특별수당을 본인보상금의 70~30%까지 추가 지원한다.

- 보상금(상이 6급 2항) : (2013년) 1,023천원 → (2014년) 1,064천원
- 상이 1급 특별수당 : (2013년) 1,402~422천원 → (2014년) 1,700~658천원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각각 월 2만원 인상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한다.

- 참전명예수당 : (2013년) 월 15만원 → (2014년) 월 17만원
- 무공영예수당 : (2013년) 월 21~23만원 → (2014년) 월 23~25만원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를 확대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진료비 : (2013년) 4,702억원 → (2014년) 4,993억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로 구분하여 전세자금은 최대 40백만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 국가유공자 등 대부: (2013년) 295억원 → (2014년) 350억원

표 5-7 • 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43,152	43,152	44,576	3.3	
보훈보상금	22,806	22,806	23,435	2.8	4% 인상
진료비	4,702	4,702	4,993	6.2	
참전·무공수당	5,298	5,298	5,436	2.6	월2만원인상
국가유공자 등 대부	295	295	350	18.6	

+ 주택 부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 임대주택 건설 : (2013년) 56,254억원 → (2014년) 49,611억원

☞ 주택구입전세자금 : (2013년) 76,500억원 → (2014년) 93,643억원

2014년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준공기준 9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 등 건설임대주택 5만호뿐만 아니라, 신속한 입주 를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함으로써 입주자가 도심 내에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철도부지·유수지 등 도심 내 토지 위에 건설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2.4만호를 신규로 사업 승인하는 등 총 14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구입·전세자금은 전년대비 약 22.4% 증가한 9.4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은 2014년부터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자리론 우대형과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서민·생애최초 구입자금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하여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의 저리로 지원한다. 지난 8.28 부동산대책에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해 도입한 공유형모기지도 1.5만호 공급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 연 1.5% 수준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 10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주택바우처는 기존 주거급여가 확대·발전된 제도로써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수, 실제 주거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한다. 주택바우처 도입으로 지원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4.4만 가구로 확대되고, 월 평균 지원액도 가구당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1,100 → 1,250억원)한다. 아울러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승강기 공사, 세대내부 환경개선 등 시설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표 5-8 · 주택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174,733	187,679	182,343	4.4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	-	296	순증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1,100	1,800	1,250	13.6	
노후공공임대시설개선	850	850	500	△41.2	
임대주택 건설	56,254	56,254	49,611	△11.8	
주택구입전세자금	76,500	86,740	93,643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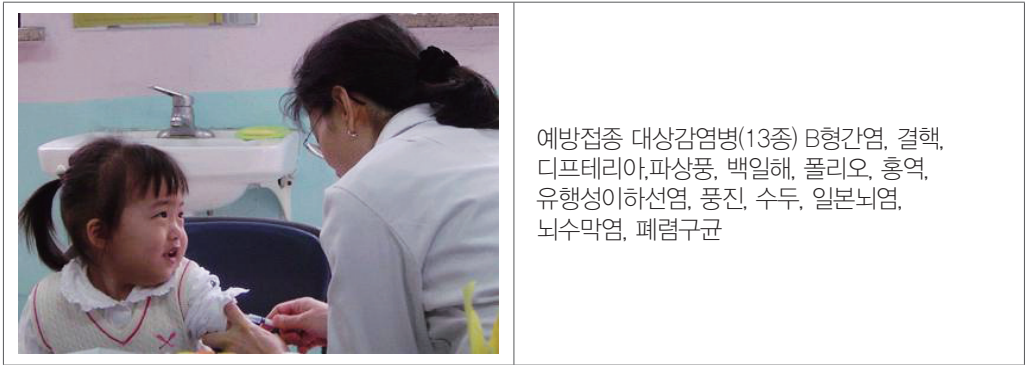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지원하고,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2013년) 87,315억원 → (2014년) 92,203억원 (5.6%증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93 → 186억원)하고,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 및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하여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3개소), 분만 취약지 산전진찰·분만이송체계 구축(10개소)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영유아 건강증진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예방접종대상 항목을 폐렴구균(2014년 하반기 시행)까지 포함한 총 13종으로 확대하고, 5천원씩 내던 본인부담금도 무료로 전환한다. 또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상 확대(42 → 135천명) 및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진료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10개)한다.



예방접종 대상감염병(13종)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폐렴구균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지원하고,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속적으로 지원(58,284 → 63,221억원)한다. 또한, 2014년부터 사립학교 및 부속기관(대학병원) 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20%)을 법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조성 및 체계적 영양공급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를 확대(88 → 188개소)하고,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영세한 유통매장 2,500개소에 신규 보급한다. 또한, 방사능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검사보조인력도 충원한다.

표 5-9 • 보건의료·건강보험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87,315	88,212	92,203	5.6	
보건의료	19,506	20,247	19,451	△0.3	
건강보험	65,131	65,131	69,665	7.0	
식품의약품안전	2,679	2,835	3,087	15.2	

06

일자리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1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11.8조원으로 2013년 11.0조원 대비 7.8%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고용률 제고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현장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근로방식 개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청년·여성·장년·어르신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투자비 등을 지원하여 고용창출 능력을 확충한다.

현장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통한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직접일자리를 지속 지원하는 등 민간의 고용시장을 보완한다.

표 6-1 · 일자리분야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본예산(a)	추경		
합 계	109,620	112,212	118,204	7.8
직접일자리	28,036	29,227	28,411	1.3
직업능력개발훈련	13,689	13,933	15,625	14.1
고용서비스	4,917	5,084	5,868	19.3
고용장려금	17,310	17,340	19,230	11.1
창업지원	4,442	5,062	5,570	25.4
실업소득 유지·지원	41,227	41,566	43,500	5.5

6-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부문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특화된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66.1만개를 창출한다.

☞ (2013년) 28,036억원, 60.1만개 → (2014년) 28,411억원, 66.1만개

2014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2013년 60.1만개보다 6만개 확대된 66.1만개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17.4 → 20.0만명)한다.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 3만개를 신설하고,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확대(900 → 2,000명)하여 노년층의 사회활동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를 1.5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이야기할머니

표 6-2 • 직접일자리 창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28,036	29,227	28,411	1.3	
장애인활동지원	3,829	3,829	4,285	11.9	
노인일자리운영	2,181	2,270	2,870	31.6	
노인돌봄서비스	1,181	1,298	1,433	21.3	
장애아동가족지원	578	578	608	5.2	

✦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

훈련과 취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현장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2013년) 13,689억원 → (2014년) 15,625억원(14.1%증가)

지역·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맞춤형 훈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2 → 22개소), 인적자원개발 종합컨설팅·산업현장교수단 등을 지원(1300개소)하여 일-학습 병행시스템 운영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훈련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50 → 60%)한다.



표 6-3 ·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13,689	13,933	15,625	14.1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489	3,489	3,996	14.5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2,007	2,007	2,115	5.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594	1,704	2,086	30.9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40	140	626	347.1	

+ 고용서비스 부문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패키지형 지원 확대와 함께,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대상별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을 확충한다.

☞ (2013년) 4,917억 → (2014년) 5,868억원(19.3%증가)

‘직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을 연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인원을 확대(22 → 25만명) 한다. 특히, 근로-복지 연계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사전 상담단계를 신설하고 참여수당(10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중장년의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를 확대(25 → 28개소)하고,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등을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도 10개소(120 → 130개소)를 확대 설치한다.

또한, 고용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는 등 대국민 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표 6-4 • 고용서비스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4,917	5,084	5,868	19.3	
취업성공패키지	1,661	1,696	2,179	31.2	
취약계층취업지원	396	396	428	8.1	
직업안정기관운영	226	226	251	11.1	

+ 고용장려금 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및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년층의 근로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한다.

☞ (2013년)17,310억 → (2014년) 19,230억원(11.1%증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를 월 60에서 월 8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을 유도한다.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설비투자 비용,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확대한다.

표 6-5 • 고용장려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17,310	17,340	19,230	11.1	
고용창출지원	477	477	1,132	137.3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420	450	577	37.6	
반듯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106	106	227	161.3	
상용형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지원	-	-	85	순증	

+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 유지·지원 부문

대학 내 창업인프라 조성 및 자금지원 등을 확대하고, 실직자 및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 (2013년) 45,669억 → (2014년) 49,070억원(7.4%증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내 창업인프라 조성 및 자금지원 등을 확대하여 청년창업 CEO를 발굴·양성할 계획이다.

우수 창업인프라를 갖추고 청년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추가 설치(18 → 23개)하고, 모바일 등에 기반한 ‘지식창업’ 중심으로 변모하는 청년창업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앱(App)·콘텐츠 분야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청년창업기업에 초기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직급여를 2013년 35,375억원에서 2014년 38,602억원으로 확충하고, 직업훈련 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대부분의 한도를 확대(600만원 → 1,000만원)한다.

표 6-6 •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 유지·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45,669	46,628	49,070	7.4	
모태펀드출자	500	800	1,000	100.0	
창업선도대학	402	402	508	26.4	
구직급여	35,375	35,375	38,602	9.1	
직업훈련생계비대부	153	153	300	96.1	

07

교육 분야

7-1. 재정지원 방향

2014년 교육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0.7조원이며, 2013년도 49.8조원보다 1.9% 증가한 수준이다. 2014년에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며,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을 통한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지방대 및 전문대학 지원 확충 등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등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2조 7,750억원 → 3조4,575억원)하여, 등록금 전액지원(450만원) 범위를 기존 소득 기초~1분위에서 기초~2분위까지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연간 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위주의 돌봄 서비스를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등 추가 돌봄 필요 학생에게 밤 10시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고 1,008억원 등을 투입하여 돌봄교실 9,600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총 17,000실의 돌봄교실에서 약 33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BK21플러스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증액(1,437 → 2,031억원)하여 지원한다.

✦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

꿈과 끼 중심의 대입전형과 대입전형의 간소화 노력 등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610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용,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 창의·인성교육 중심의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충한다.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기반 확충

전문대학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를 통한 핵심 직업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일-교육·훈련-자격이 상호 연계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학습모듈 195개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기반 확충도 강화할 예정이다.

표 7-1 •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c/a)
	본예산(a)	추경		
합 계	497,700	498,858	506,995	1.9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2,362	412,362	411,452	△0.2
고등교육	76,807	77,477	88,705	15.5
평생·직업교육	7,326	7,813	5,716	△22.0
교육일반	1,205	1,205	1,123	△6.8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복지 증진과 창의·인성교육 중심 수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2013년) 412,362억원 → (2014년) 411,452억원 (0.2%감소)

201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등 추가 돌봄 필요 학생에게 밤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고 1,008억원 등을 투입하여 돌봄교실 9,600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총 17,000실의 돌봄교실에서 약 33만명의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5년에는 1~4학년, 2016년에는 1~6학년까지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교 안전 강화(CCTV 교체)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의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립부설학교의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확대 배치(2,500 → 2,600명) 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의 처우 개선(17 → 18백만원)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지원한다. 특수교육 현황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와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20 → 31억원)도 확대한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감소(취득세 인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국세) 5% → 11%)) 등에 따라 2013년 대비 1,938억원이 감액된 40조 8,681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세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시·도교육청의 시·도세 전입금 등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동 재원을 통해 3~5세 누리과정,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학교 체육 활성화,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표 7-2 •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412,362	412,362	411,452	Δ0.2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	-		1,008	순증	신규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408		363	Δ11.0	
장애학생 교육지원	121		145	19.8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20		31	5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0,619		408,681	Δ0.5	

✦ 고등교육 부문

국가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셋째아이 대학장학금 지원 신설, 학자금 대출이자 2.9% 동결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정상화 지원 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 (2013년) 76,807억원 → (2014년) 88,705억원 (15.5%증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2조 7,750억원 → 3조 4,575억원)하여, 등록금 전액지원(450만원) 범위를 기존 소득 기초~1분위에서 기초~2분위까지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2~6분위까지 1인당 지급 금액을 최대 180만원~22.5만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기초~1분위까지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여 1회에 한하여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자녀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연간 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든든학자금 대출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7-3 · 국가장학금 I 유형 지급률, 지급범위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3년	450 (100%)	450 (100%)	270 (60%)	180 (40%)	135 (30%)	112.5 (25%)	90 (20%)	67.5 (15%)	67.5 (15%)
2014년	450 (100%)	450 (100%)	450 (100%)	337.5 (75%)	247.5 (55%)	157.5 (35%)	112.5 (25%)	67.5 (15%)	67.5 (15%)
증액	-	-	180	157.5	112.5	45	22.5	-	-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교내·외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1,431 → 1,943억원)함에 따라, 대상자가 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인문사회 학부생 및 전문대학 우수인재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에 135억원을 지원하며, 2013년부터 신규로 착수하였던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에 100억을 투자하여 1,800여 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약정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꿈과 끼 중심의 대입전형, 대입전형의 간소화,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를 위한 대학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여 대입전형에 의존된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6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2,031억원을 지원하여, 대학의 강점분야와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교육·연구·산학협력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 방안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혁신 지원사업(100억원)을 추진하고, BK21 플러스 사업을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 규모를 확대(51 → 57개)하여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학문후속세대부터 신진교수, 중견연구자, 우수 학자까지 연구자 생애주기에 맞는 인문사회분야 및 이공학분야 학술연구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 저변 확대와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인문사회기초연구(1,277 → 1330억원)와 인문학진흥(521 → 599억원) 지원을 강화하여 학문간 균형적 성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 7-4 • 고등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76,807	77,477	88,705	15.5	
국가장학금 지원(셋째 포함)	27,750		34,575	24.6	
대학생 근로장학금	1,431		1,943	35.8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395		610	35.2	사업 재편
지방대 특성화 사업	1,437		2,031	41.3	
국립대 혁신 지원	100		100	-	
BK21 플러스 사업	2,741		2,974	8.5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2,257	276	2,467	9.3	
인문사회 기초연구	1,277		1,330	4.2	
인문학 진흥방안	521		599	14.9	

+ 평생·직업교육 부문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등 100세 시대 국가평생 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사업 등의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013년) 7,326억원 → (2014년) 5,716억원 (22.0%감소)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지원 2,010억원 지방비 이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35개교), 일자리 친화적 자격·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비학위 전문가과정(10개교) 지원 등에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에 181억원을 지원한다. 읍·면·동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에 19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강좌 등 전국의 평생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생학습 포털 구축(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에 13억원도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전문대학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역량 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을 위해 78개 전문대학을 선정 2,69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 지원(150 → 195억원)하며 전문대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진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세계로 프로젝트(31억원)를 신규로 추진한다.

일-교육·훈련·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학습모듈(195개) 개발에 141억원을 지원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티고, 전문대학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외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 등 재외동포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재외동포교육 운영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640 → 654억원),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26 → 36억원)하는 등, 국제교육 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표 7-5 • 평생·직업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7,326	7,813	5,716	Δ22.0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171	183	181	5.8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31	107	50	61.3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48		58	20.8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540		2,696	6.1	사업개편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150	100	195	30.0	
세계로 프로젝트	-		31	순증	신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14	41	141	907.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640		654	2.2	

08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2014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4조원 수준으로 2013년 5.0조원보다 7.7%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민간공연예술 창작지원과 예술인 복지를 확대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신규 도입,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공공인문학 강좌 확대 등 문화향유기회 확산에 역점을 두었다.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호텔 및 고부가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 민간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및 예술인복지 확대

기초예술지원체계를 선별적 · 소액 지원방식에서 포괄적 · 인프라 지원방식으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2013년)1,223억원 → (2014년)1,868억원)하여 민간공연단체 공연비가 평균 20% 낮아진다.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확충한다.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예술인에 대한 국민연금 · 고용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고 직업 · 창작역량 강화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또한, 예술인들이 공연장 · 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예술인 패스도 신규로 발급한다.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공연 · 여행 · 스포츠관람 등을 선택하여 쓸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을 발급한다. 주민들의 여가 · 동아

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20 곳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유휴공간 및 폐산업시설 등에도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 창작기반을 제공한다. 국민들이 인문학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박물관에서 공공 인문학 강좌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장서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우수도서 보급 지원도 강화한다.



은평 애프터센터

+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고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 일가를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한다. 문화콘텐츠 창작과 창업의 공간인 콘텐츠코리아랩을 서울 1개소, 지방 2개소 조성한다. 문화콘텐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에 신규 출자하여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2013년에 외래관광객이 1,200만명을 넘어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므로 관광산업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2013년)2,920억원 → (2014년)4,800억원)한다. 외래관광객들의 소비규모가 큰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크루즈 및 의료 관광 지원을 확대하여 관광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

국민들이 체력을 증진하고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체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을 확대

한다.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수당과 숙박비를 인상하고 국가대표종합훈련장(2단계) 건립지원을 확대하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표 8-1 •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본예산(a)	추경		
합 계	50,276	51,452	54,130	7.7
문화예술	20,166	20,849	22,404	11.1
관광	10,964	11,157	12,316	12.3
체육	10,744	10,930	10,463	△2.6
문화재	5,848	6,148	6,199	6.0
문화 및 관광 일반	2,554	2,554	2,748	7.6

8-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문화예술 부문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예술인들의 기초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창작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문화예술 부문 : (2013년) 20,166억원 → (2014년) 22,404억원 (11.1%증가)

민간 예술지원 사업들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통합하고 공연비용 패키지 지원(108억원) 및 공연 종합연습장 조성(1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공연비 부담을 덜어준다. 예술인들의 국민연금·산재·고용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고 출연금 미지급 등 불공정 피해시 법률자문·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예술인 안전망을 확충한다.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통합하여 기초·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국민들이 단순한 문화수용자를 탈피해 직접 문화활동을 체험하도록 문화예술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20개소)를 조성한다. 흥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 산업시설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예술창작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71%인 8,000개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전당 개관(2015년)을 대비하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확대((2013년)71억원 → (2014년)443억원)한다.

출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주출판단지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늘린다.(20개 → 40개) 상상력·창의성의 근간인 인문학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인문학 진흥 사업을 확대한다.((2013년)102억원 → (2014년)242억원)

한국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전문가가 엄선한 한국의 공연과 전시를 패키지로 묶어 아시아·유럽·북중미 등에 투어시키는 사업을 신규 지원(28억원)한다. 한류의 확산 등으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세종학당을 단계적으로 확충(120개 → 130개)하고 한국어 교원 파견도 확대(24명 → 38명)한다. 국립한글박물관을 개관하여 국민들이 한글의 다양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음악,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의 창작과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3개소)을 조성하고(102억원) 문화콘텐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한다.

캐릭터 · 라이선싱 페어



표 8-2 · 문화예술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3,206	3,517	5,374	67.6	
문예기금 지원사업	1,223	1,223	1,868	52.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00	144	200	100.0	
통합문화이용권	421	421	516	22.6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	-	120	순증	
산업단지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	-	125	순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44	744	843	13.3	
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71	141	455	540.9	
인문학 진흥	102	102	242	137.3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60	60	85	41.7	
한글의 가치 확산	78	80	102	30.8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407	577	516	26.8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25	102	순증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	-	200	순증	

+ 관광 부문

관광산업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관광호텔을 확충하고 고부가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외래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 외래관광객 수 목표 : (2013년) 1,200만명 → (2014년) 1,300만명 (8.3%증가)

외래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광호텔 객실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관광산업 융자를 대폭 확대((2013년)2,920억원 → (2014년)4,800억원)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MICE 산업을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2013년)215억원 → (2014년)218억원)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소비규모가 큰 의료 및 크루즈 관광 지원을 확대하여 외래관광객들의 국내 소비 증가를 유도한다.



의료관광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고품격 공예디자인 관광상품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2013년)20억원 → (2014년)35억원)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예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단위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확대한다.((2013년)120억원 → (2014년)135억원) 전통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하는 템플스테이,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창업하는 관광두레 사업을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로 지원한다.(20억원)

지역별 관광개발사업의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개발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신규 지원한다.(9억원)

표 8-3 • 관광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3,693	3,873	5,676	53.7	
관광산업 융차지원	2,920	3,070	4,800	64.4	
MICE산업 육성지원	215	215	218	1.4	
의료관광 육성	44	44	54	22.7	
크루즈관광활성화사업	-	-	14	순증	
공예관광상품개발	20	20	35	75.0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20	150	135	12.5	
전통문화체험 지원	252	252	276	9.5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122	122	135	10.7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	-	9	순증	

+ 체육 부문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국가 위상 강화를 위해 전문체육 및 국제경기대회를 적극 지원하며, 창조경제를 위한 스포츠산업을 육성·지원한다.

☞ 국제경기대회지원 : (2013년) 2,977억원 → (2014년) 3,419억원(14.8% 증)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동용품 및 스포츠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복나눔스포츠교실 운영 개소를 확대((2013년) 200개소 → (2014년)350개소)하고 생활체육 보급의 전도사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2013년)2,230명 → (2014년)2,480명)을 확대한다. 국민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처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체력인증제((2013년)40억원 → (2014년)56억원)를 활성화한다. 국민체육센터((2013년)528억원 → (2014년)537억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2013년)93억원 → (2014년)113억원)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대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하여 전문체육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14년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국가대표선수 수당((2013년)4만원 → (2014년)5만원),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직장이 있는 지도자: (2013년)월 330만원 → (2014년)월 450만원, 직장이 없는 지도자: (2013년)월 430만원 → (2014년)월 500만원), 국가대표 선수촌 외 숙박비((2013년)2만원/일 → (2014년)4만원/일) 등을 대폭 인상한다. 국가대표선수가 선수촌에 들어올 때 건강검진비도 지원한다. 또한, 국가대표 후보 선수를 위해서 전임지도자 인건비를 현실화((2013년)월 400만원 → (2014년)월 450만원)하고 후보선수 숙박비도 국가대표선수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을 위해 선수 훈련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인천 국가대표종합훈련장(충청북도 소재)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 2단계 지원((2013년)326억원 → (2014년)522억원)을 확대한다. 태릉 선수촌 시설 보강을 위해 2013년 컬링장 시설보강에 이어 2014년은 태릉 실내빙상장 시설개선(10억원)을 추진한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국기인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태권도 사범 파견 및 국기 태권도 전문 시범단 창설·운영, 태권도 시범공연, 주한 외국인 대상 태권도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2013년) 55억원 → (2014년)68억원)하고

2014년 상반기에 개원 예정인 태권도원(전북 무주 소재)의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2013년)121억원 → (2014년)194억원)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더불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014년 3개소 신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전문체육 분야에서도 2014년 소치 장애인올림픽대회, 인천 장애인올림픽대회를 위해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비 및 참가비((2013년)62억원 → (2014년)88억원) 등을 적극 지원한다.

표 8-4 · 체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a)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합 계	3,710	4,316	16.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275	305	10.9	
주요 국제경기대회 지원	2,977	3,419	14.8	
태권도 관련 지원	175	262	49.7	
스포츠과학기술개발(R&D)	77	87	13.0	
장애인(생활, 전문)체육 지원	206	243	18.0	

+ 문화재 부문

문화유산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원형 보존하고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정착과 문화재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문화융성의 원천자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 문화재부문 : (2013년) 5,848억원 → (2014년) 6,199억원(6.0% 증)

문화유산을 합리적으로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 증가와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수정비지원을 확대((2013년)2,130억원 → (2014년)2,338억원)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승 의욕을 높이고 무형유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승자 월정전승지원금 인상(2013년 대비 5%) 및 무형유산원을 활성화((2013년)290억원 → (2014년)403억원)한다.

궁궐과 서원·향교 등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재 활용정책기반을 강화((2013년)38억원 → (2014년)119억원)한다.

문화유산 교육·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해양유물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강화((2013년)46억원 → (2014년)68억원)하고, 학부 및 대학원의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복원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선왕궁과 세계유산 조선왕릉 정체성 회복을 위한 체계적 원형 정비와 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경복궁(소주방, 흥복전 권역), 덕수궁(석어당, 흥덕전), 사직단 등 궁궐 복원·정비와 고궁(경복궁, 창경궁) 야간개방 확대(17일 → 42일)에 따른 관람환경 개선, 세종대왕역사관 건립지원 등을 확대((2013년)427억원 → (2014년)497억원)한다.

문화재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정착을 지원한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57억원), 문화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 확대(2,200개소 → 5,200개소), 소규모 지표·발굴조사 비용 신청대비 지원을 확대(60% → 100%)로 국민 부담이 경감되도록 문화재 보호 예방적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2013년)618억원 → (2014년)719억원)한다.

표 8-5 • 문화재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a)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합 계	4,235	4,844	14.4	
문화재보존관리	2,584	2,892	11.9	
문화재 활용	217	317	46.1	
문화유산 교육연구	389	419	7.7	
궁능원관리	427	497	16.4	
문화재 보호	618	719	16.3	

09

환경 분야

9-1. 재정지원 방향

2014년 환경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6.5조원으로 2013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예산은 3.2% 증가한 5.6조원이고, 기금은 △1.5% 감소한 0.9조원이다. 수질개선 투자규모는 내실화 하되 최근 수요확대 분야의 투자 비중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미래환경 대비와 환경보전,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투자를 확대 하였다.

➤ 수질개선 기초시설 구조조정 및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그 간 4대강 사업으로 집중 투자된 수질개선사업은 투자 규모를 내실화 하되, 도시침수 대응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최근 수요확대 분야의 투자비중을 강화한다.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등 전통적인 환경 기초시설 투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연차적 소요를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상수도 보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서민들이 마시는 지하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수질조사를 추진한다.

➤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재사용 확대를 위한 업사이클링(Up-cycling) 사업을 추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집적화를 유도하여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며 미처리 폐기물 매립제로화를 추진하는 등 자원순환사회 조기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강화로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탄소협력금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생태휴식공간 확충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강화

자연마당 및 생태놀이터 등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가생물자원 주권확보 및 체계적인 생물자원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피해구제 강화 등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장외영향평가제 등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유해물질 등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표 9-1 · 환경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본예산(a)	추경		
합 계	62,962	65,256	64,560	2.5
상하수도·수질	41,620	43,712	43,245	3.9
폐기물	3,390	3,390	3,235	△4.6
대기	2,919	2,919	2,665	△8.7
자연 및 해양	6,419	6,505	6,612	3.0
환경일반	8,613	8,730	8,804	2.2

* 총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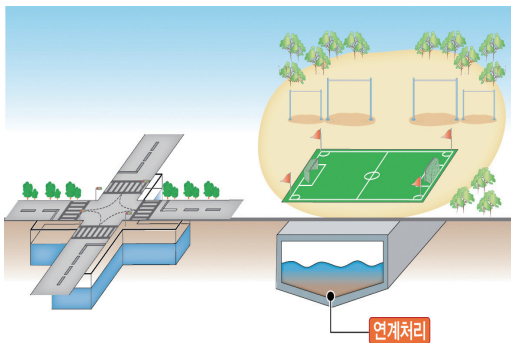
9-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상하수도 · 수질 부문

생명·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있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 (2013년) 41,620억원 → (2014년) 43,245억원 (3.9% 증가)

수질개선 투자규모를 내실화하되, 농어촌마을하수도, 비점오염원 관리 등 최근 수요 확대 분야로 투자 비중을 강화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부처 협업을 통해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등은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하절기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 도시침수대응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침수예방 지하저류시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도시 등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하수(약수터) 안전성 강화 및 토양환경 관리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 상수도 서비스보급을 지속 추진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도시 등 급수취약지역

표 9-2 • 상하수도·수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41,620	43,712	43,245	3.9	
하수관거	7,144	7,594	7,329	2.6	
공단폐수처리시설	3,088	3,452	3,118	1.0	
생태하천복원	2,886	2,896	2,605	△9.7	
농어촌마을하수도	1,877	2,064	2,552	36.0	
도시침수대응	841	841	1,758	109.0	
상수도시설 확충	3,766	3,766	3,711	△1.5	

+ 폐기물 부문

폐기물의 직매립 제한을 통해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를 유도하고, 재사용·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사이클링(Up-cycling) 사업에 투자한다.

☞ (2013년) 3,390억원 → (2014년) 3,235억원 (△4.6% 감소)



부산 유기성에너지화 시설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 미처리된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확보한다.

공급자와 수요자간 맞춤형 거래장터인 폐기물거래소 구축·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사용 확대를 위한 업사이클링(Up-cycling) 사업 추진으로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며 권역별 거점지역 단위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등 비효율적 물류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자원순환체계를 조기 구축한다.

표 9-3 • 폐기물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3,390	3,390	3,235	△4.6	
쓰레기 처리시설	858	858	703	△18.1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80	80	29	△63.8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20	20	41	105.0	
폐기물 자원회수시설확충	1,114	1,114	1,075	△3.5	
재활용산업육성 용자	730	730	750	2.7	

✦ 대기 부문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저탄소협력금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2013년) 2,919억원 → (2014년) 2,665억원 (△8.7% 감소)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예·경보제 대상 지역 및 물질을 확대하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15~'24)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시장 창출을 지원하여 2015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쿨링포그 시스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공부문, 지자체 등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저탄소 녹색제품 보급 및 그린카드 사용 확대 등 녹색생활 실천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폭염대비 쿨링존 조성, 침수지역 침수 차단 시설 설치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

표 9-4 • 대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2,919	2,919	2,665	△8.7	
대기오염 측정망	133	133	170	27.8	
온실가스 인프라구축	124	124	162	30.8	
저탄소차협력금	-	-	35	순증	
전기차 보급	276	276	254	△7.9	
대기개선사업	1,130	1,130	1,051	△7.0	

✦ 자연 및 해양부문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을 통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물자원 주권확보 및 체계적인 생물자원 보전·관리기반을 강화한다.

☞ (2013년) 6,419억원 → (2014년) 6,612억원 (3.0% 증가)



매화마름(멸종위기 2급)

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생태관광사업을 활성화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및 훼손·단절지역 복원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도시지역의 유희·방치 부지를 활용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자연환경과 생태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

화하여 국민들이 자연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킨다.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고유 자생생물 및 야생생물 유전자원의 발굴과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방안 등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표 9-5 • 자연 및 해양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6,419	6,505	6,612	3.0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109	109	212	37.7	
국립공원사업	1,078	1,088	1,115	3.4	
고유생물주권확보	25	25	28	10.6	
생물자원발굴 및 분류	110	110	127	15.8	

+ 환경일반 부문

환경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화학사고 예방, 어린이 환경보건 증진 및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마련에 투자한다.

☞ (2013년) 8,613억원 → (2014년) 8,804억원 (2.2% 증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 현장

Global Top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에 지속 투자하고,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에 지속 투자하는 한편,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화학물질안전원을 신설하

여 화학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화학물질 취급·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를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증진에 지속 투자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를 도입 등 환경피해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국고 보조를 확대하여 석면 슬레이트 철거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9-6 · 환경일반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8,613	8,730	8,804	2.2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1,240	1,240	1,200	△3.2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	131	131	141	7.7	
석면관리종합대책	194	194	311	60.8	
어린이환경보건대책	120	120	140	16.8	
화학물질 안전관리	116	137	189	62.9	

10

국방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1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35.7조원이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적정 군수지원능력 보장,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보람있는 군 복무를 위한 병 근무여건 개선

군 복무 중 병사들의 생활경비 충당을 위해 사병봉급을 인상하고, 피복·장구류 품질 개선, 급식비 인상, 병영생활관과 부대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장병 의·식·주의 질을 높인다.

✦ 전투역량 강화와 적정 군수지원을 통한 국방태세 확립

전방 일선부대 전투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작전 및 경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며, 안정적 수리부속 확보와 정비유지 등 적정 군수지원을 강화한다.

✦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첨단 무기 도입과 성능개량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표 10-1 • 국방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본예산(a)	추경		
합 계	343,453	344,970	357,056	4.0
병력운영	142,718	142,718	148,409	4.0
전력유지	99,572	100,503	103,551	4.0
방위력개선	101,163	101,749	105,096	3.9

10-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병력운영 부문

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 및 급식비를 인상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 추진에 따라 전투력 유지 및 병력 정예화를 위해 부사관을 증원한다.

☞ 병력운영 : (2013년) 14.3조원 → (2014년) 14.8조원 (4.0%증가)

병사들이 병영 내에서 봉급을 통해 생활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병 봉급을 15% 인상하고, 장교와 부사관의 잠수함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잠수함 지원 장려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장병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6.5% 인상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민간조리원도 증원하여 운영한다. 또한 기능성 전투화, 하계 전투복, 동 운동복 등 개인 피복류의 공급을 확대하고 일선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신형 방탄헬멧과 기능성 방한복, 그리고 신형 수통 등을 확대 보급한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군 구조 개편으로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군 간부 증원을 통해 병력 정예화를 추진한다.

표 10-2 • 병역운영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142,718	142,718	148,409	4.0	
인건비	99,866	99,866	103,587	3.7	법정부담금 포함
급식 및 피복	18,738	18,738	19,695	5.1	급식비 단가 6,432 → 6,848원
기금전출	24,114	24,114	25,127	4.2	

✦ 전력유지 부문

전방부대 전투역량과 군수지원 강화를 통해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장비 의·식·주 여건 개선과 군 의료지원 확대, 장비 편의증진 등을 통해 복무여건도 개선한다.

☞ 전력유지 : (2013년) 10.0조원 → (2014년) 10.4조원 (4.0%증가)

전방부대 전투력 발휘를 위하여 낙하산, 발전기 등 장비·물자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GP·GOP 작전시설을 보강하고, 도서·해안지역의 경계시설도 보강한다. 또한, 전술도로 포장(포장률 88 → 96%)과 비행단 활주로 보강 등을 통해 작전의 기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투력 강화와 전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군수지원능력을 보강한다(4.2 → 4.5조원). 주요 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해 정비·수리부속과 연료 공급을 확대하고, 탄약고·무기고 등 노후 전투지원시설을 현대화 한다.

각급 부대의 전투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제 전투와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용 탄약 공급을 확대(3,179 → 3,401억원)하고, 군단급 실전적 훈련장을 실제 전장상황과 유사하게 조성한다.

병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시설 리모델링을 지속 추진(125 → 68개 대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투자 사각지대였던 해안소초 병영생활관(64동)도 대폭 개선한다. 아울

러 식당, 목욕탕, 화장실 등 장병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일과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하여 병영문화쉼터 건립을 확대(164 → 269동)한다. 또한, 병사들의 체육·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병영생활관에는 디지털TV도 확대 보급한다. 작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전방 전술도로 제설기 보급을 확대하고, 혹서기 대비 이동형 에어컨도 보급한다.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군 의료지원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상병건강검진과 유해환경 근무자에 대한 특수신체검사를 확대하고, 뇌수막염·A형간염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확대(273 → 301억원)한다.

표 10-3 • 전력유지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b)	증감률 (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99,572	100,503	103,551	4.0	
군수지원 및 협력	42,190	42,190	45,227	7.2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4,343	25,274	24,776	1.8	
군인사 및 교육훈련	5,148	5,148	4,873	△5.3	
기타	27,891	27,891	28,675	2.8	

+ 방위력개선 부문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성능개량을 통한 현존전력 보강 및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을 보강한다.

☞ 방위력 개선 : (2013년) 10.1조원 → (2014년) 10.5조원 (3.9%증가)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표적을 탐지·타격하는 Kill Chain과 적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 아울러, 북한의 국지도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 GOP과학화경제시스템 등을 확보한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 K-9 자주포 성능개량 등으로 무기체계를 강화하고, C-130H 성능개량, KA-1 표적측정장비 등 기존 무기체계의 취약분야를 보강하여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대형공격헬기 등 기동·화력 능력 현대화, 차기상륙함 등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능력 강화, FA-50 등 공중우세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기초연구, 핵심기술, 민군겸용기술, 보라매·소형무장헬기 체계개발 등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활성화 및 방산수출 지원 인프라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10-4 • 방위력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101,163	101,749	105,096	3.9	
무기체계 양산 및 도입	75,462	75,963	80,205	6.3	
국방 R&D 투자	24,386	24,471	23,345	△4.3	
방위사업종합지원 등 기타	1,315	1,315	1,546	17.6	

11

외교 · 통일 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2014년 외교 · 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4.2조원 수준이며, 2013년도 예산 4.1조원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국제기여 관련 지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13년 2조 574억원에서 2조 2,757억원으로 10.6% 증가한 수준이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전년 보다 153억원 증액한 1조 1,132억원 수준이다.

+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지원 확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4년도에는 우리의 발전경험, 기업 및 인력 진출과 연계한 ODA를 중점적으로 발굴 · 지원한다. 특히 해외 청년일자리 파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기업 진출과 연계한 개도국 차관 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들의 신흥시장 확대에도 기여한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개발의 대표적 브랜드인 새마을운동 국제 확산을 통한 개도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한 · 미 · 중 등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와 함께, 남북간 실질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위한 관련국간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한 · 미동맹과 한 · 중 동반자관계의 조화 · 발전과 함께 한 · 일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간다. 아울러,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수립 및 집행을 통해 세계 각국과 문화 외교활동을 확대하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한편 우리 문화에 동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 강화에 노력한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기반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초 하에 국제적 규범과 원칙에 따라 북한과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구체적 이행은 국민적 합의,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표 11-1 •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c/a)
	본예산(a)	추경		
합 계	41,207	41,214	42,142	2.3
외교·통상 부문	27,649	27,656	28,538	3.2
통일 부문	13,558	13,558	13,604	0.3

1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외교·통상 부문

국제기여 확대로 국격을 제고하고 국제 외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재외공관 인프라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외교·통상부문 총지출은 2조 8,538억원으로 편성한다.

☞ 외교·통상부문 총지출: (2013년) 27,649억원 → (2014년) 28,538억원 (3.2%증가)

2014년도 외교·통상부문 총지출은 2조 8,538억원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등 국제기여 확대 등으로 인해 2013년도 보다 889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대비 2014년 0.16%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를 포함한 양자 ODA 규모를 2013년 14,222억원에서 2014년 16,064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111억원 → 262억원, 136%)과 해외긴

급구조지원(236억원 → 307억원, 30%)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를 확대(57억원 → 67억원)한다. 또한,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외교전략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세계 각국과 문화교류 활동을 확대한다.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한편, 우리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관련 투자를 확대(60 → 90억원)한다.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사건·사고 예방 등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156억원)을 지속하고,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처우개선 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 지원(945 → 978억원)한다.

표 11-2 • 외교·통상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27,649	27,656	28,538	3.26	
국제기구분담금	5,397	5,397	4,620	△14.4	UN분담금 등
공적개발원조(ODA)	20,574	20,574	22,757	10.6	KOICA 출연, EDCF
공공외교 역량강화	60	67	90	50.0	재외공관을 통한 공공외교 역량 강화 등

+ 통일 부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통일부문 총지출은 1조 3,604억원으로 편성한다.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 (2013년) 10,979억원 → (2014년)11,132억원 (1.4%증가)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기존의 남북문제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낮지만,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년 수준인 1.1조원 규모로 편성하여 추진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1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제시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302억원)하여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DMZ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을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북 쌀지원 40만톤 및 비료지원 30만톤 규모를 유지하고, 민간 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지원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6,802억원)

또한, 2014년도에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재가동된 개성공단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개성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902억원 → 1,126억원)한다. '14년 8월에 준공 예정인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건립”을 적기에 지원(134억원 → 162억원)하여 청소년 통일 현장체험 및 국제 청소년 교류에 활용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라 남북회담,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 교류의 장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을 확대(144 → 166)한다. 일선 학교에 대한 통일현장 체험 경비를 시범적으로 지원(3억원)하고,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등 학교 통일교육 지원을 확대(38억원 → 42억원)하여 추진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교육원 등 통일교육 현장의 개보수를 지원하여 관람객의 편의 및 학습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그 외에도 통일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확대(14억원 → 19억원)하여 추진한다.

표 11-3 • 통일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본예산(a)	추경			
합 계	13,558	13,558	13,604	0.3	
DMZ 세계평화공원	-	-	302	순증	연구개발비, 지리 제거비 등
인도적 지원	7,238	7,238	6,802	△6.0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134	134	162	20.7	센터 조성 경비
개성공단 지원	902	902	1,126	24.8	기반시설, 융자
학교통일교육 강화	38	38	42	10.5	체험 교육 등
오두산 통일전망대	16	16	30	82.7	개보수비 등

12

공공질서 · 안전 분야

12-1. 재정지원 방향

2014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15.8조원으로 2013년 15.0조원보다 5.1%증가하였다. 2014년 예산은 4대 사회악 척결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투자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통한 4대악 척결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5년간 경찰인력 2만 명을 증원하여 민생안전 분야에 우선 배치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2,500 → 3,100명) 등 범죄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증인지원실 확대(28 → 63개소) 등으로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 치유적 사법제도의 도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가족의 붕괴와 해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사재판제도를 모색하고 장애인 등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사법부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 해양주권 수호 강화 및 해양안전 관리체계 구축

해양경비 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함정 건조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해양안전관리 활동 등을 통한 해양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 재해예방투자 지속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에서 시스템 투자로 전환한다. 도시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서민밀집 위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 노력도 지속한다.

산업단지에는 특수사고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도 대비한다.

표 12-1 • 공공질서·안전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c)	증감률(c/a)
	본예산(a)	추경(b)		
합 계	150,248	151,580	157,866	5.1
법원 및 헌재	15,449	15,449	16,157	4.6
법무 및 검찰	28,857	28,869	29,791	3.2
경찰	84,667	84,877	90,636	7.0
해양경찰	11,432	11,432	11,597	1.4
재난관리	9,843	10,953	9,684	△1.6

1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법원 및 헌재부문

치유적 사법제도의 도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향상,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지원 센터 확대 운영, 진술조력인제도의 도입 등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사법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과 사법부의 소통을 강화한다.

☞ 가사재판운영 : (2013년) 20억원 → (2014년) 37억원

☞ 민사재판운영 : (2013년) 54억원 → (2014년) 68억원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가족의 붕괴와 해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재판 제도(치유적 사법제도, Healing Court)를 모색하여 가정법원에 전용상담실, 면접교섭 센터, 협의이혼실 등을 마련하고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 Healing Camp 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강화한다.

장애인과 외국인, 다문화가정, 노약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통합소송 지원실 설치와 소송지원관 등 물적·인적 자원의 제공을 통하여 사법접근성 제고 및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아동·여성 등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전국에 증인지원센터 35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표 12-2 • 법원 및 헌재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a)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합 계	15,449	16,157	4.6	
가사재판운영	20	37	85.0	치유적 사법제도 도입
민사재판지원	54	68	25.2	장애인 사법접근성 향상
법정중심재판지원	269	281	4.5	증인지원센터 확대운영 (기존 28실에 35실 추가)
일반재판운영지원	362	374	3.1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 범무 및 검찰부문

4대악 사범에 대한 수사지원, 전자발찌착용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심리치료비 지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한다.

- ☞ 성범죄 등 4대악 사범단속 : (2013년) 20억원 → (2014년) 44억원
-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 (2013년) 78억원 → (2014년) 105억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부정식품 등 4대악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총력 수사체제 지원을 위해 성폭력 전담 수사반 및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 운영, 학교폭력 사범 단속 활동 등을 강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 진술 전문가 양성,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결정전 교사 의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2014년부터 강력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장 힘들고 금전적 소요가 절실한 피해 발생 초기에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및 부대비용 등을 신규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지원을 위해 스마일센터를 확대 설치(4 → 6개소) 한다.

전자발찌착용자에 대한 관리능력을 제고하고자 전국 14개 이던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26개팀으로 확대하였으며, 선제적인 재범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징후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사전 연구를 시작한다.

재한 외국인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체류 외국인 기초 법·제도 교육을 통한 외국인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난민지원시설 운영 및 난민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규정 마련에 따라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

표 12-3 • 생계비 지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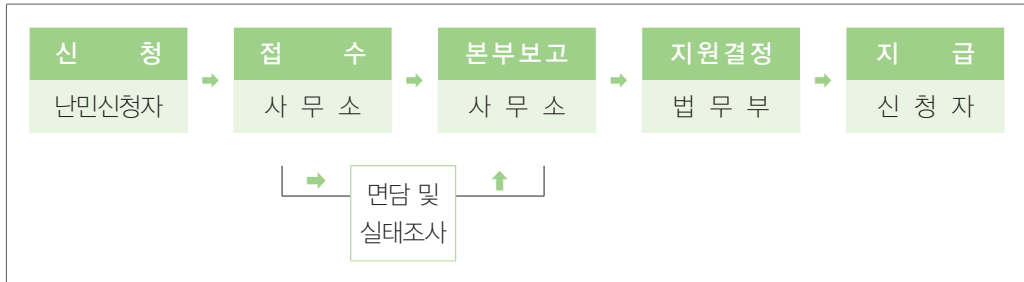


표 12-4 • 법무 및 검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13년(a)	2014년(b)	증감률(b/a)	비고
합계	28,857	29,791	3.2	
수사일반	582	622	7.0	민원환경 및 절차 개선, 포렌직수사 강화 등
특정범죄자위치관리	67	91	35.4	전자발찌 야간비상경보 처리전담반 확대 운영 등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 및 대응	40	59	49.1	국내·외 로펌 법률자문비 증액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7	30	70.3	체류외국인 기초 법·제도 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용관리	952	993	4.3	수용자 급량비 5.3% 증액, 수용자 일상용품 지급 확대 등

+ 경찰 부문

4대 사회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인력을 3,520명 증원하는 한편, 스마트워크시스템·3D 얼굴인식시스템 등 첨단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제6회 지방선거·인천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중요행사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 신입순경교육 : (2013년) 111억원 → (2014년) 253억원

☞ 제6회 지방선거사범 수사·인천아시안게임 : (2014년) 116억원

경찰관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내실있는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

사 인력풀로 구성하고, 현장실습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신입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4대악 근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피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속기사 지원, 실종아동 지문 등 사전등록제 운영, 아동안전 지킴이 인원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 인천아시안게임(9.19~10.4, 16일간) 등 국가적 행사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경호·대테러 활동 및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 등 안전하고 공명정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경찰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경찰민원포털시스템, 각종 범죄지표를 제공하는 범죄지도 대국민서비스 등을 통해 치안서비스를 강화한다.

CCTV, 블랙박스 등 촬영된 영상 속 용의자의 얼굴을 3D로 인식, 특징점을 추출, 영상 속 용의자 얼굴 인식률을 개선토록 하는 3D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 범인검거율 및 국민의 체감치안도 향상에 기여한다.

표 12-5 • 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13년(a)	2014년(b)	증감률(b/a)	비고
합 계	84,667	90,636	7.0	
신임순경교육	111	253	127.9	증원인력 교육경비 등 증액
성폭력범죄수사지원	14	19	30.1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전문가 등 참여 증액
여성청소년보호활동	106	132	24.8	실종아동 지문 등 사전 등록제 등 증액
아동안전지킴이	219	240	9.6	아동안전지킴이 인원 증가 및 처우개선
경비경찰활동	329	417	26.9	인천아시아안게임 증액
감사관감찰활동	10	25	144.8	민원포털시스템 구축

✦ 해양경찰 부문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대형함정 3척 등을 신규 건조하여 해상 치안 능력을 강화하고,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 대형함정건조 : (2013년) 569억원 → (2014년) 737억원

☞ V-Pass시스템구축 : (2013년) 41억원 → (2014년) 51억원

불법 외국어선 단속 중 발생한 해경요원 사망 등과 같이 흉포화되는 해상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형함정 3척과 중·대형함정에 탑재하는 고속단정을 신규 도입하여 기동력을 강화하고 안전장비 기능을 보강하여 영해수호를 위한 단속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소형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고속제트보트·수상오토바이 등 연안구조장비 도입을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대형함정 및 고속단정

고속제트보트

표 12-6 • 해양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a)	2014년(b)	증감률(b/a)	비 고
합 계	11,432	11,597	1.4	
대형함정 건조	569	737	29.5	대형함정 3척, 고속단정 6척 등 건조
노후함정 대체 건조	1,525	1,343	△11.9	노후 중·대형 2척, 소형 11척 등 대체 건조
V-Pass 시스템 구축	41	51	24.4	어선 12,500척 설치

+ 재난관리 부문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에서 시스템 투자로 전환하고, 특수소방장비 확충으로 화학물질 유출 등 특수사고에 대비한다

☞ 재해예방투자 : (2013년) 6,811억원 → (2014년) 6,272억원

☞ 특수사고대응단 시설장비지원 : (2014년) 203억원 신규 반영

그간의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 기조를 시스템 투자로 전환하여 투자의 효과를 확대한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빗물저류시설설치, 소화천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전국의 산업단지에 특수사고대응단을 설치하고 원전관할소방서에는 특수소방장비 확보를 지원하는 등 화학물질유출, 방사능 오염 등 특수사고에 대한 대비 체계를 구축한다.



표 12-7 •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13년(a)	2014년(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9,843	9,684	△1.6	
재해예방투자	6,811	6,272	△7.9	빗물저류시설 27개소 등
특수사고대응단 시설장비지원	-	203	순증	출동차량 6종 22대 등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보강	19	32	68.4	무인파괴방수탑차 4대 화학보호복 1,831벌

03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14년도 예산

제2장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www.mosf.go.kr

제1장 2014년도 예산

2 0 1 4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4

01

2014년도 예산총칙

❖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247,203,163,288,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944,189,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6,302,557,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287,906,00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56,741,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90,394,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4,877,040,139,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774,648,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41,778,297,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698,661,438,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55,960,845,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17,380,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81,078,000,000원
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361,289,000,000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498,285,000,000원
⑯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67,273,816,000원
⑰ 조달특별회계	474,850,000,000원
⑱ 우편사업특별회계	3,803,717,621,000원
⑳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055,552,000,000원

- ❖ 제2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 제3조 2014년도 계속비는 별첨「계속비」와 같다.
- ❖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 제5조 2014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명시이월비」와 같다.
- ❖ 제6조 2014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 ❖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 ❖ 제8조 2014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 ❖ 제9조 2014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민주택기금	11,500,000,000,000원
공공자금관리기금	98,000,000,000,000원
외국환평형기금	2,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 통신 사업·기동전력 사업·함정 사업·항공기 사업·화력탄약 사업·감시정찰 정보 전자전 사업·정밀타격/신평수무기 사업·성능개량 사업(연구개발 성능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은 긴급소요, 환율변동, 반환금,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335,4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13년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13년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감소액 정산, '13년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13년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감소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13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5,517,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4,175,000,000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265,817,000,000원

- ❖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92,561,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13,677,419,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0,312,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743,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32,990,000,000원
⑥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404,175,000,000원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84,695,000,000원

-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59,060,000,000원 이내로 한다.
- ❖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0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13년도 본예산 FY2013 Budget		2013년도 추경예산 FY 2013 Supplementary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내국세 (Internal Taxes)	179,007,000	75.8	173,763,000	72.2
2. 관세 (Customs Duties)	10,988,800	4.7	10,269,100	4.3
3.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13,000,500	5.5	13,000,500	5.4
4. 교육세 (Educational Tax)	4,777,200	2.0	4,762,200	2.0
5.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095,000	0.5	1,095,000	0.5
6.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27,356,788	11.6	37,780,369	15.7
· 국채발행 (Government Bonds Issuance)	8,560,000	3.6	24,458,833	10.2
· 기타수입 (Others)	18,796,788	8.0	13,321,536	5.5
합 계 (Total)	236,225,288	100.0	240,670,169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79,621,000	72.7	614,000	0.3	5,858,000	3.4
10,550,600	4.3	△438,200	△4.0	281,500	2.7
13,480,800	5.5	480,300	3.7	480,300	3.7
4,458,900	1.8	△318,300	△6.7	△303,300	△6.4
1,139,100	0.5	44,100	4.0	44,100	4.0
37,952,763	15.4	10,595,975	38.7	172,394	0.5
27,674,552	11.2	19,114,552	223.3	3,215,719	13.1
10,278,211	4.2	△8,518,577	△45.3	△3,043,325	△22.8
247,203,163	100.0	10,977,875	4.6	6,532,994	2.7

구 분 Classification	2013년도 본예산 FY2013 Budget	2013년도 추경예산 FY 2013 Supplementary Budget
1. 국세 (Tax Total)	208,868,500	202,889,800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179,007,000	173,763,000
나. 관세 (Customs Duties)	10,988,800	10,269,1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13,000,500	13,000,5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4,777,200	4,762,200
마.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095,000	1,095,000
2.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27,356,788	37,780,369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3,125,053	3,339,120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5,777,544	5,777,544
다. 재화및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970,139	970,139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60,072	260,072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owned Properties)	354,712	354,712
바.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2,174	2,174
사.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7,801,460	1,786,460
아. 전년도이월금 (Carry-over from prev. Year)	0	325,681
자. 정부내부수입및기타 (Other)	9,065,634	24,964,467
(국채발행) (Government Bonds Floatation)	(8,560,000)	(24,458,833)
합 계 (Total)	236,225,288	240,670,169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09,250,400	381,900	0.2	6,360,600	3.1
179,621,000	614,000	0.3	5,858,000	3.4
10,550,600	△438,200	△4.0	281,500	2.7
13,480,800	480,300	3.7	480,300	3.7
4,458,900	△318,300	△6.7	△303,300	△6.4
1,139,100	44,100	4.0	44,100	4.0
37,952,763	10,595,975	38.7	172,394	0.5
2,046,994	△1,078,059	△34.5	△1,292,126	△38.7
5,782,480	4,936	0.1	4,936	0.1
991,604	21,465	2.2	21,465	2.2
288,012	27,940	10.7	27,940	10.7
92,843	△261,869	△73.8	△261,869	△73.8
1,451	△723	△33.3	△723	△33.3
647,515	△7,153,945	△91.7	△1,138,945	△63.8
0	0	0	△325,681	△100.0
28,101,864	19,036,230	210.0	3,137,397	12.6
(27,674,552)	(19,114,552)	(223.3)	(3,215,719)	(13.1)
247,203,163	10,977,875	4.6	6,532,994	2.7

나. 국세수입 내역 (Tax Revenues)

구 분 Classification	2013년도 예산 FY2013 Budget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173,763,000
(1) 소득세 (Income Tax)	49,780,200
(가) 신고분 (Income Tax Not Withheld)	18,236,500
(나) 원천분 (Withheld Income Tax)	31,543,700
(2) 법인세 (Corporation Tax)	45,962,100
(3) 상속세 (Inheritance Tax)	4,732,800
(가) 상속세 (Inheritance Tax)	2,037,600
(나) 증여세 (Gift Tax)	2,695,200
(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56,612,000
(5)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5,850,700
(6) 증권거래세 (Security Transaction Tax)	4,538,800
(7) 인지세 (Stamp Tax)	641,900
(8) 기타내국세 (Other Internal Tax)	5,644,500
나. 관세 (Customs Duties)	10,269,1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13,000,5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4,762,200
마.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095,000
합 계 (Total)	202,889,8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79,621,000	5,858,000	3.4
54,382,100	4,601,900	9.2
19,882,849	1,646,349	9.0
34,499,251	2,955,551	9.4
46,018,100	56,000	0.1
4,625,900	△106,900	△2.3
2,008,626	△28,974	△1.4
2,617,274	△77,926	△2.9
58,454,500	1,842,500	3.3
5,981,900	131,200	2.2
3,989,000	△549,800	△12.1
692,600	50,700	7.9
5,476,900	△167,600	△3.0
10,550,600	281,500	2.7
13,480,800	480,300	3.7
4,458,900	△303,300	△6.4
1,139,100	44,100	4.0
209,250,400	6,360,600	3.1

다. 소관별 세입예산 (Revenues Budget by Agencies)

소 관 Agency	2013년도 예산 FY2013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71	0	0	71
(02) 대통령경호실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54	0	0	54
(03) 국회 (National Assembly)	1,139	0	0	1,139
(04) 대법원 (Supreme Court)	511,659	0	0	511,659
(05)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0	0	0	0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4,705	0	0	4,705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5	0	0	5
(08)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762	0	0	762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1,162	0	0	1,162
(10)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8,480,299	24,458,833	0	232,939,132
① 내국세 (Internal Taxes)	173,763,000	0	0	173,763,000
② 관세 (Customs Duties)	10,269,100	0	0	10,269,100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13,000,500	0	0	13,000,500
④ 교육세 (Educational Tax)	4,762,200	0	0	4,762,200
⑤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095,000	0	0	1,095,000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5,590,499	24,458,833	0	30,049,332
(11)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524,760	0	0	524,760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550,357	0	0	550,357
(13)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40,100	0	0	140,100
(14) 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589	0	0	589
(15)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1,903,693	0	0	1,903,693
(16)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103,681	0	0	103,681
(17) 안전행정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9,900	0	0	39,900
(18)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43,026	0	0	43,026
(19)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1,471	0	0	21,471
(20)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94,023	0	0	94,023
(21)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461,665	0	0	461,665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72	0	0	72	1	0	0	1
67	0	0	67	13	0	0	13
1,506	0	0	1,506	367	0	0	367
574,650	0	0	574,650	62,991	0	0	62,991
448	0	0	448	448	0	0	448
1,250	0	0	1,250	△3,455	0	0	△3,455
4	0	0	4	△1	0	0	△1
317	0	0	317	△445	0	0	△445
1,159	0	0	1,159	△3	0	0	△3
212,097,784	27,674,552	0	239,772,336	3,617,484	3,215,719	0	6,833,203
179,621,000	0	0	179,621,000	5,858,000	0	0	5,858,000
10,550,600	0	0	10,550,600	281,500	0	0	281,500
13,480,800	0	0	13,480,800	480,300	0	0	480,300
4,458,900	0	0	4,458,900	△303,300	0	0	△303,300
1,139,100	0	0	1,139,100	44,100	0	0	44,100
2,847,384	27,674,552	0	30,521,936	△2,743,116	3,215,719	0	472,603
325,378	0	0	325,378	△199,382	0	0	△199,382
321,847	0	0	321,847	△228,509	0	0	△228,509
181,222	0	0	181,222	41,122	0	0	41,122
2,065	0	0	2,065	1,476	0	0	1,476
1,910,835	0	0	1,910,835	7,142	0	0	7,142
206,204	0	0	206,204	102,523	0	0	102,523
41,963	0	0	41,963	2,063	0	0	2,063
47,677	0	0	47,677	4,651	0	0	4,651
22,901	0	0	22,901	1,430	0	0	1,430
235,247	0	0	235,247	141,224	0	0	141,224
394,459	0	0	394,459	△67,206	0	0	△67,206

소 관 Agency	2013년도 예산 FY2013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2)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0	0	0	0
(23)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54,092	0	0	54,092
(24)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8,149	0	0	8,149
(25)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11,927	0	0	111,927
(26)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58,485	0	0	258,485
(27)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5,502	0	0	5,502
(28)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8,615	0	0	8,615
(29)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	0	0	20
(30)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31,603	0	0	31,603
(31)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604,852	0	0	604,852
(32)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4,834	0	0	14,834
(33)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15	0	0	115
(34)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195	0	0	195
(35) 국세청 (National Tax Adm.)	827,027	0	0	827,027
(36) 관세청 (Customs Service)	27,107	0	0	27,107
(37) 통계청 (Statistics Korea)	3,202	0	0	3,202
(38)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277	0	0	277
(39)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21,197	0	0	121,197
(40) 경찰청 (National Police Adm.)	1,034,939	0	0	1,034,939
(41)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14,314	0	0	14,314
(42)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26,981	0	0	26,981
(43)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6,648	0	0	6,648
(44)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118,853	0	0	118,853
(45)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	42,742	0	0	42,742
(46) 기상청 (Meteorological Adm.)	2,709	0	0	2,709
(47) 해양경찰청 (National Maritime Police Adm.)	3,831	0	0	3,831
합계 (Total)	216,211,336	24,458,833	0	240,670,169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	합 계 Total
185	0	0	185	185	0	0	185
58,413	0	0	58,413	4,321	0	0	4,321
10,158	0	0	10,158	2,009	0	0	2,009
102,977	0	0	102,977	△8,950	0	0	△8,950
103,828	0	0	103,828	△154,657	0	0	△154,657
3,513	0	0	3,513	△1,989	0	0	△1,989
10,267	0	0	10,267	1,652	0	0	1,652
20	0	0	20	0	0	0	0
42,747	0	0	42,747	11,144	0	0	11,144
698,124	0	0	698,124	93,272	0	0	93,272
16,614	0	0	16,614	1,780	0	0	1,780
7,012	0	0	7,012	6,897	0	0	6,897
555	0	0	555	360	0	0	360
915,083	0	0	915,083	88,056	0	0	88,056
26,881	0	0	26,881	△226	0	0	△226
2,798	0	0	2,798	△404	0	0	△404
165	0	0	165	△112	0	0	△112
102,964	0	0	102,964	△18,233	0	0	△18,233
822,141	0	0	822,141	△212,798	0	0	△212,798
9,373	0	0	9,373	△4,941	0	0	△4,941
31,101	0	0	31,101	4,120	0	0	4,120
7,524	0	0	7,524	876	0	0	876
94,509	0	0	94,509	△24,344	0	0	△24,344
87,278	0	0	87,278	44,536	0	0	44,536
3,467	0	0	3,467	758	0	0	758
3,860	0	0	3,860	29	0	0	29
219,528,611	27,674,552	0	247,203,163	3,317,275	3,215,719	0	6,532,994

라. 성질별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by Objects)

구 분 Classification	2013년도 예산 FY2013 Budget
11.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3,339,120
51. 관유물대여료 (Rent from Land & Buildings)	72,265
52. 정부출자수입 (Dividends & Profits)	547,100
53. 전대차관이자수입 (Interest)	905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Others)	2,718,850
12.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5,777,544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Fine & Confiscation)	3,661,380
57. 변상금및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90,769
58. 가산금 (Penalties to Delinquency)	763,706
59. 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1,261,688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970,139
62. 병원수입 (Hospital Income)	7,945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633
65. 면허료및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692,793
66. 입학금및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206,681
67. 항공항만및용수수입 (Revenues from Airport, Harbors & Water)	0
68. 실습수입 (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3,814
69. 잡수입 (Others)	57,273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046,994	△1,292,126	△38.7
56,851	△15,414	△21.3
325,100	△222,000	△40.6
1,066	161	17.8
1,663,977	△1,054,873	△38.8
5,782,480	4,936	0.1
3,663,453	2,073	0.1
69,444	△21,325	△23.5
735,634	△28,072	△3.7
1,313,949	52,261	4.1
991,604	21,465	2.2
8,038	93	1.2
2,552	919	56.3
719,914	27,121	3.9
208,064	1,383	0.7
961	961	순증
3,490	△324	△8.5
48,585	△8,688	△15.2

구 분 Classification	2013년도 예산 FY2013 Budget
14.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60,072
51. 관유물대여료 (Sales of Gov't Properties)	687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2,287
65. 면허료및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196,241
69. 잡수입 (Others)	50,857
15.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354,712
71. 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Capital Assets)	7,415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347,289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8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2,174
75. 융자원금회수 (Collection of Principals A/C' s)	148
77. 전대차관원금회수 (Collection of Counterpart Sub-loan)	2,026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1,786,460
84. 유가증권매각대 (Sales of State-holding Stocks)	1,786,460
33. 전년도이월금 (Carry-over from Prev. Year)	325,681
88. 전년도이월금 (Carry-over from Prev. Year)	325,681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24,964,467
91. 전입금 (Transfer from Gen. A/C)	505,634
94. 예수금 (Collection of Trust Fund)	24,458,833
합 계 (Total)	37,780,369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88,012	27,940	10.7
457	△230	△33.5
14,605	2,318	18.9
229,159	32,918	16.8
43,791	△7,066	△13.9
92,843	△261,869	△73.8
6,795	△620	△8.4
85,894	△261,395	△75.3
153	145	1,812.5
1,451	△723	△33.3
0	△148	△100.0
1,451	△575	△28.4
647,515	△1,138,945	△63.8
647,515	△1,138,945	△63.8
0	△325,681	△100.0
0	△325,681	△100.0
28,101,864	3,137,397	12.6
427,312	△78,322	△15.5
27,674,552	3,215,719	13.1
37,952,763	172,394	0.5

2-2.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13년도 본예산 FY2013 Budget		2013년도 추경예산 FY 2013 Supplementary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50,827,161	21.5	51,233,889	21.3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3,794,928	5.8	13,906,935	5.8
3.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2,428,144	1.0	2,428,844	1.0
4. 국방 (National Defense)	34,526,032	14.6	34,677,763	14.4
5. 교육 (Education)	49,378,082	20.9	49,456,247	20.5
6.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2,166,407	0.9	2,246,832	0.9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285,851	1.4	3,464,661	1.4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28,107,695	11.9	28,557,713	11.9
9. 보건 (Health)	6,733,181	2.9	6,818,851	2.8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7,178,947	3.0	7,381,541	3.1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5,596,938	2.4	5,920,238	2.5
12.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16,403,054	6.9	16,949,254	7.0
13. 통신 (Communication)	322,685	0.1	339,685	0.1
14.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6,491,242	2.7	6,769,076	2.8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5,084,942	2.2	5,189,642	2.2
16. 예비비 (Reserve Funds)	3,900,000	1.7	5,329,000	2.2
합 계 (Total)	236,225,288	100.0	240,670,169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52,897,349	21.4	2,070,188	4.1	1,663,460	3.2
14,512,361	5.9	717,433	5.2	605,426	4.4
2,353,662	1.0	△74,482	△3.1	△75,182	△3.1
35,893,113	14.5	1,367,081	4.0	1,215,350	3.5
50,199,315	20.3	821,233	1.7	743,068	1.5
2,239,954	0.9	73,547	3.4	△6,878	△0.3
3,656,408	1.5	370,557	11.3	191,747	5.5
32,868,157	13.3	4,760,462	16.9	4,310,444	15.1
7,135,848	2.9	402,667	6.0	316,997	4.6
7,053,816	2.9	△125,131	△1.7	△327,725	△4.4
5,563,284	2.3	△33,654	△0.6	△356,954	△6.0
17,748,485	7.2	1,345,431	8.2	799,231	4.7
306,990	0.1	△15,695	△4.9	△32,695	△9.6
5,939,501	2.4	△551,741	△8.5	△829,575	△12.3
5,299,519	2.1	214,577	4.2	109,877	2.1
3,535,400	1.4	△364,600	△9.3	△1,793,600	△33.7
247,203,163	100.0	10,977,875	4.6	6,532,994	2.7

나. 소관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소 관 Agency	2013년도 예산 FY2013 Budget
01. 대통령실 (Office of the President)	83,027
02. 대통령경호실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78,858
03. 국회 (National Assembly)	521,871
04. 대법원 (Supreme Court)	1,226,963
05.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35,384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351,374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5,035
08.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106,503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467,180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Prime Minister's Office)	540,428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7,550,571
▶예비비 (Contingency)	5,329,000
▶일반경비 (General Adm.)	12,221,571
12.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4,969,733
13.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49,643,944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81,628
15. 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422,182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2,590,981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4,322,103
18. 안전행정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9,251,670
19.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1,650,136
2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5,092,174
21.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3,036,949
22.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5,857,435
23.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3,316,254
24.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9,107
25.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60,72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84,134	1,107	1.3
79,370	512	0.6
504,177	△17,694	△3.4
1,271,421	44,458	3.6
39,023	3,639	10.3
329,496	△21,878	△6.2
23,883	△1,152	△4.6
107,177	674	0.6
471,200	4,020	0.9
540,895	467	0.1
16,051,198	△1,499,373	△8.5
3,535,400	△1,793,600	△33.7
12,515,798	294,227	2.4
5,406,156	436,423	8.8
49,986,534	342,590	0.7
1,992,360	10,732	0.5
337,420	△84,762	△20.1
2,680,152	89,171	3.4
25,195,966	873,863	3.6
39,989,374	737,704	1.9
1,658,883	8,747	0.5
4,657,936	△434,238	△8.5
2,807,264	△229,685	△7.6
29,554,052	3,696,617	14.3
3,533,584	217,330	6.6
2,047,824	18,717	0.9
282,720	22,000	8.4

소 관 Agency	2013년도 예산 FY2013 Budget
2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9,035,515
27.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162,021
28. 법제처 (Ministry of Legislation)	27,739
29.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4,130,739
30.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98,425
31.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4,091
32.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51,517
33.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93,310
34.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420,432
35.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68,698
36.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91,803
37. 국세청 (National Tax Adm.)	1,445,372
38. 관세청 (Customs Service)	454,644
40. 통계청 (Statistics Korea)	237,870
41.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180,757
42.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0,174,903
43. 경찰청 (National Police Adm.)	8,228,189
44.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726,845
45.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529,207
46.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656,077
47.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1,304,321
48.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	2,781,504
50. 기상청 (Meteorological Adm.)	318,838
5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757,978
52. 해양경찰청 (National Maritime Police Adm.)	1,057,167
53.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 Investment Agency)	0
합 계 (Total)	240,670,169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9,395,841	360,326	1.9
2,402,223	240,202	11.1
29,070	1,331	4.8
4,261,395	130,656	3.2
325,300	26,875	9.0
24,560	469	1.9
50,699	△818	△1.6
84,565	△8,745	△9.4
1,118,270	697,838	166.0
69,477	779	1.1
97,569	5,766	6.3
1,473,503	28,131	1.9
482,555	27,911	6.1
274,451	36,581	15.4
187,493	6,736	3.7
10,509,653	334,750	3.3
8,698,595	470,406	5.7
657,243	△69,602	△9.6
544,281	15,074	2.8
704,618	48,541	7.4
1,376,201	71,880	5.5
2,643,310	△138,194	△5.0
349,041	30,203	9.5
679,193	△78,785	△10.4
1,113,393	56,226	5.3
18,463	18,463	순증
247,203,163	6,532,994	2.7

다. 기능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구 분 Classification	2013년도 예산 FY2013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51,233,889	21.3
1) 입법및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873,245	0.4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532,628	0.2
3) 지방행정·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35,963,966	14.9
4) 재정·금융 (Budget & Finance)	11,519,506	4.8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648,020	0.3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1,696,524	0.7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3,906,935	5.8
1) 법원 및 헌재 (Law Court & Constitutional Court)	1,262,347	0.5
2) 법무및검찰 (Justice & Prosecution)	2,590,981	1.1
3) 경찰 (Police)	8,250,262	3.4
4) 해경 (Maritime Police)	1,046,530	0.4
5)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756,815	0.3
3.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2,428,844	1.0
1) 통일 (National Unification)	447,216	0.2
2) 외교·통상 (Foreign Affairs & Trade)	1,981,628	0.8
4. 국방 (National Defense)	34,677,763	14.4
1)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14,271,778	5.9
2) 전력유지 (Maintenance of Military Force)	10,050,326	4.2
3) 방위력개선 (National Defense Improvement)	10,174,903	4.2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180,757	0.1
5. 교육 (Education)	49,456,247	20.5
1) 유아및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41,523,623	17.3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7,339,463	3.0
3) 평생·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472,681	0.2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120,480	0.1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52,897,349	21.4	1,663,460	3.2
833,673	0.3	△39,573	△4.5
543,165	0.2	10,537	2.0
36,093,258	14.6	129,292	0.4
12,992,297	5.3	1,472,791	12.8
681,709	0.3	33,689	5.2
1,753,247	0.7	56,723	3.3
14,512,361	5.9	605,427	4.4
1,310,444	0.5	48,097	3.8
2,680,152	1.1	89,171	3.4
8,721,734	3.5	471,473	5.7
1,106,750	0.4	60,220	5.8
693,281	0.3	△63,534	△8.4
2,353,662	1.0	△75,182	△3.1
361,303	0.1	△85,913	△19.2
1,992,360	0.8	10,731	0.5
35,893,113	14.5	1,215,350	3.5
14,840,833	6.0	569,056	4.0
10,355,133	4.2	304,807	3.0
10,509,653	4.3	334,750	3.3
187,493	0.1	6,737	3.7
50,199,315	20.3	743,069	1.5
41,465,434	16.8	△58,188	△0.1
8,366,051	3.4	1,026,589	14.0
255,427	0.1	△217,255	△46.0
112,403	0.0	△8,077	△6.7

구 분 Classification	2013년도 예산 FY2013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6.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2,246,832	0.9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1,435,347	0.6
2) 관광 (Tourism)	6,871	0.0
3) 체육 (Sports)	68,132	0.0
4)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529,207	0.2
5) 문화및관광일반 (General Culture & Tourism)	207,276	0.1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464,661	1.4
1)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148,407	0.1
2) 환경일반 (General Environment)	3,316,254	1.4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28,557,713	11.9
1) 기초생활보장 (Basic Livelihood Guarantee)	8,768,934	3.6
2) 취약계층지원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1,501,798	0.6
3) 공적연금 (Public Pension)	2,058,102	0.9
4) 보육·가족및여성 (Childcare, Family & Women)	4,358,878	1.8
5) 노인·청소년 (Seniors & Youth)	4,374,257	1.8
6) 노동 (Labor)	2,029,107	0.8
7) 보훈 (Patriots & Veterans Affairs)	4,130,739	1.7
8) 주택 (Housing)	657,413	0.3
9) 사회복지일반 (General Social Welfare)	678,484	0.3
9. 보건 (Health)	6,818,851	2.8
1) 보건의료 (Healthcare)	1,046,704	0.4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5,493,272	2.3
3) 식품의약품안전 (Food & Drug Safety)	278,875	0.1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7,381,541	3.1
1) 농업·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5,767,801	2.4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304,321	0.5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309,419	0.1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239,954	0.9	△6,878	△0.3
1,460,513	0.6	25,166	1.8
5,436	0.0	△1,435	△20.9
4,477	0.0	△63,655	△93.4
544,281	0.2	15,074	2.8
225,247	0.1	17,971	8.7
3,656,408	1.5	191,748	5.5
122,824	0.0	△25,583	△17.2
3,533,584	1.4	217,331	6.6
32,868,157	13.3	4,310,444	15.1
8,824,503	3.6	55,569	0.6
1,580,034	0.6	78,236	5.2
2,661,222	1.1	603,120	29.3
5,501,932	2.2	1,143,054	26.2
6,434,823	2.6	2,060,566	47.1
2,047,824	0.8	18,717	0.9
4,261,395	1.7	130,656	3.2
840,979	0.3	183,566	27.9
715,445	0.3	36,961	5.4
7,135,848	2.9	316,997	4.6
885,109	0.4	△161,595	△15.4
5,947,356	2.4	454,084	8.3
303,383	0.1	24,508	8.8
7,053,816	2.9	△327,724	△4.4
5,384,471	2.2	△383,330	△6.6
1,376,201	0.6	71,880	5.5
293,144	0.1	△16,275	△5.3

구 분 Classification	2013년도 예산 FY2013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5,920,238	2.5
1) 산업금융지원 (Support for Industry Finance)	574,888	0.2
2) 산업기술지원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699,612	0.3
3) 무역및투자유치 (Trade & Investment Inducement)	681,459	0.3
4) 산업진흥·고도화 (Promotion & Development of Industry)	2,431,426	1.0
5) 에너지및자원개발 (Development of Energy & Resources)	365,391	0.2
6) 산업·중소기업일반 (General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1,167,462	0.5
12.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16,949,254	7.0
1) 도로 (National Road)	8,742,331	3.6
2) 철도 (Railroad)	5,028,490	2.1
3) 도시철도 (City Railroad)	781,089	0.3
4) 해운·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1,025,426	0.4
5) 항공·공항 (Aviation & Airport)	13,518	0.0
6) 물류 등기타 (Distribution & Others)	1,358,400	0.6
13. 통신 (Communication)	339,685	0.1
1) 방송통신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339,685	0.1
14.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6,769,076	2.8
1) 수자원 (Water Resources)	2,769,362	1.2
2) 지역및도시 (Region & City)	3,995,254	1.7
3)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4,460	0.0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5,189,642	2.2
1) 기술개발 (Technology Development)	2,103,509	0.9
2) 과학기술연구지원 (Support for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2,650,242	1.1
3) 과학기술일반 (General Science & Technology)	435,890	0.2
16. 예비비 (Reserve Funds)	5,329,000	2.2
1) 예비비 (Reserve Funds)	5,329,000	2.2
합 계 (Total)	240,670,169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5,563,284	2.3	△356,954	△6.0
341,600	0.1	△233,288	△40.6
707,914	0.3	8,302	1.2
575,162	0.2	△106,297	△15.6
2,455,641	1.0	24,216	1.0
253,685	0.1	△111,706	△30.6
1,229,282	0.5	61,820	5.3
17,748,485	7.2	799,231	4.7
8,279,769	3.3	△462,562	△5.3
6,150,866	2.5	1,122,376	22.3
649,886	0.3	△131,203	△16.8
1,243,648	0.5	218,222	21.3
12,687	0.0	△831	△6.1
1,411,629	0.6	53,229	3.9
306,990	0.1	△32,695	△9.6
306,990	0.1	△32,695	△9.6
5,939,501	2.4	△829,575	△12.3
2,383,001	1.0	△386,361	△14.0
3,528,265	1.4	△466,989	△11.7
28,235	0.0	23,775	533.1
5,299,519	2.1	109,877	2.1
2,050,190	0.8	△53,319	△2.5
2,767,551	1.1	117,309	4.4
481,777	0.2	45,887	10.5
3,535,400	1.4	△1,793,600	△33.7
3,535,400	1.4	△1,793,600	△33.7
247,203,163	100.0	6,532,994	2.7

라. 성질별 세출내역 (Expenditure by Functions)

구 분 Classification	2013년도 예산 FY2013 Budget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25,453,656
11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25,453,656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17,801,326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2,969,064
220 여비 (Travel Expenses)	568,280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850,268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195,308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1,702,870
260 연구개발비 (R & D Expenses)	1,515,536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134,020,248
310 보전금 (Compensation)	11,568,024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s)	4,937,084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98,382,953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1,243,650
350 출연금 (Funding)	17,888,536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14,921,001
410 토지매입비 (Land Assets)	411,043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5,143,243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8,699,266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27,776
460 출자금 (Investment)	639,673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7,526,402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7,526,402
600 전출금등 (Transfers)	35,612,453
610 전출금등 (Intra-Gov't Transactions)	35,612,453
70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5,335,082
71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5,335,082
합 계 (Total)	240,670,169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6,685,894	1,232,237	4.8
26,685,894	1,232,237	4.8
18,192,139	390,813	2.2
13,698,598	729,534	5.6
564,843	△3,437	△0.6
866,618	16,350	1.9
178,330	△16,978	△8.7
1,729,501	26,631	1.6
1,154,248	△361,288	△23.8
138,285,781	4,265,533	3.2
12,240,676	672,652	5.8
4,630,398	△306,686	△6.2
101,187,048	2,804,095	2.9
1,205,842	△37,808	△3.0
19,021,817	1,133,280	6.3
14,850,666	△70,335	△0.5
426,927	15,884	3.9
4,888,454	△254,789	△5.0
9,099,712	400,446	4.6
28,396	619	2.2
407,178	△232,495	△36.3
7,902,980	376,578	5.0
7,902,980	376,578	5.0
37,745,578	2,133,125	6.0
37,745,578	2,133,125	6.0
3,540,126	△1,794,957	△33.6
3,540,126	△1,794,957	△33.6
247,203,163	6,532,994	2.7

마. 2014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				
	계 (Total)	보수(110-01) Wages	기타직보수(110-02)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일용임금(110-03) Daily Wages	연가보상비(110-04)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s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2,444,894	2,292,027	77,780	36,888	38,198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9,715,867	9,321,249	245,998	7,224	141,396
3.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421,432	301,945	110,925	6,939	1,622
4. 국방 (National Defense)	9,925,705	9,673,432	89,071	6,478	156,724
5. 교육 (Education)	1,770,027	1,627,673	128,553	5,230	8,571
6.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313,116	203,681	98,345	7,856	3,234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502	0	410	90	2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611,916	434,337	155,619	14,501	7,459
9. 보건 (Health)	94,771	80,463	12,557	366	1,385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601,251	478,542	83,889	30,816	8,004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172,599	158,007	12,016	318	2,259
12.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396,234	358,902	30,293	1,240	5,799
13. 통신 (Communication)	91,720	83,423	6,666	96	1,535
14.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21,529	13,553	4,866	2,866	244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104,331	94,756	7,685	288	1,602
16. 예비비 (Reserve Funds)	0	0	0	0	0
합 계 (Total)	26,685,894	25,121,989	1,064,675	121,198	378,032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물건비(200) Goods Service	이전지출(300) Current Transfer	자산취득(400) Asset Acquisition	상환지출(500) Repayment of Loans	전출금등(600) Transfers	예비비및기타 (700) Contingency & Others	합 계 Total
2,378,750	37,193,472	414,923	7,825,198	2,636,430	3,682	52,897,349
3,145,915	861,903	706,975	0	81,177	525	14,512,361
473,363	1,268,901	40,681	29,286	120,000	0	2,353,662
9,254,027	2,973,770	11,215,234	0	2,524,377	0	35,893,113
368,807	46,941,800	476,409	2,876	639,106	289	50,199,315
390,757	1,094,774	218,059	0	223,226	23	2,239,954
30,429	41,410	50,483	0	3,533,584	0	3,656,408
507,639	28,323,060	82,995	204	3,342,141	202	32,868,157
218,905	6,482,853	62,300	0	277,019	0	7,135,848
537,094	848,647	434,212	193	4,632,416	4	7,053,816
110,022	3,956,762	77,260	0	1,246,641	1	5,563,284
322,241	1,666,380	149,669	45,223	15,168,738	0	17,748,485
73,290	119,097	17,140	0	5,743	0	306,990
189,645	1,750,144	708,222	0	3,269,961	0	5,939,501
191,257	4,762,809	196,104	0	45,018	0	5,299,519
0	0	0	0	0	3,535,400	3,535,400
18,192,139	138,285,781	14,850,666	7,902,980	37,745,578	3,540,126	247,203,163

바. 2014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

구분 Classification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방 National Defense	교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2,444,894	9,715,867	421,432	9,925,705	1,770,027	313,116	502
110 보수 (Wages)	2,292,027	9,321,249	301,945	9,673,432	1,627,673	203,681	0
110 기타직보수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77,780	245,998	110,925	89,071	128,553	98,345	410
110 일용임금 (Daily Wages)	36,888	7,224	6,939	6,478	5,230	7,856	90
110 연가보상비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s)	38,198	141,396	1,622	156,724	8,571	3,234	2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2,378,750	3,145,915	473,363	9,254,027	368,807	390,757	30,429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270,688	1,910,841	373,815	7,954,720	306,206	330,080	16,160
220 여비 (Travel Expenses)	160,602	98,267	49,124	146,366	6,207	12,609	248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517,986	160,804	3,037	177,911	0	0	0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37,939	35,033	23,727	58,148	1,660	3,488	25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210,036	902,799	12,398	467,683	36,109	11,234	371
260 연구개발비 (R & D Expenses)	181,499	38,171	11,262	449,198	18,625	33,346	13,625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37,193,472	861,903	1,268,901	2,973,770	46,941,800	1,094,774	41,410
310 보전금 (Compensation)	61,066	51,782	84,065	657,950	58,756	14,639	20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s)	171,897	189,520	45,555	119,194	211,166	619,037	27,295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36,038,157	499,457	11,776	5,020	40,974,678	382,435	12,945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 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 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 계 Total
611,916	94,771	601,251	172,599	396,234	91,720	21,529	104,331	-	26,685,894
434,337	80,463	478,542	158,007	358,902	83,423	13,553	94,756	-	25,121,989
155,619	12,557	83,889	12,016	30,293	6,666	4,866	7,685	-	1,064,675
14,501	366	30,816	318	1,240	96	2,866	288	-	121,198
7,459	1,385	8,004	2,259	5,799	1,535	244	1,602	-	378,032
507,639	218,905	537,094	110,022	322,241	73,290	189,645	191,257	-	18,192,139
390,875	127,572	469,845	69,898	176,416	56,467	90,056	154,960	-	13,698,598
26,008	8,992	24,125	12,193	10,289	2,771	1,923	5,118	-	564,843
0	0	0	0	0	3,822	0	3,058	-	866,618
6,213	748	2,491	3,200	2,529	767	345	2,018	-	178,330
26,410	4,511	22,073	8,367	16,283	4,318	980	5,931	-	1,729,501
58,134	77,083	18,560	16,363	116,724	5,145	96,340	20,173	-	1,154,248
28,323,060	6,482,853	848,647	3,956,762	1,666,380	119,097	1,750,144	4,762,809	-	138,285,781
5,353,053	5,951,036	6,902	893	190	93	4	225	-	12,240,676
946,096	194,842	253,363	574,563	488,873	20,528	738,815	29,654	-	4,630,398
21,649,207	129,256	372,305	74,600	37,337	0	990,767	9,109	-	101,187,048

구분 Classification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방 National Defense	교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135,799	3,849	474,938	393,522	82,430	2,467	1,150
350 출연금 (Funding)	786,553	117,294	652,567	1,798,084	5,614,770	76,195	0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414,923	706,975	40,681	11,215,234	476,409	218,059	50,483
410 토지매입비 (Land Assets)	0	0	0	62,816	1,000	17,057	0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77,559	397,685	22,476	2,826,411	373,213	137,691	48,362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174,052	297,167	18,193	8,325,349	102,196	42,608	1,971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3,312	12,123	12	658	0	703	150
460 출자금 (Investment)	160,000	0	0	0	0	20,000	0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7,825,198	0	29,286	0	2,876	0	0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7,825,198	0	29,286	0	2,876	0	0
600 전출금등 (Transfers)	2,636,430	81,177	120,000	2,524,377	639,106	223,226	3,533,584
610 전출금등 (Intra-Gov't Transactions)	2,636,430	81,177	120,000	2,524,377	639,106	223,226	3,533,584
70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3,682	525	0	0	289	23	0
71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3,682	525	0	0	289	23	0
합계 (Total)	52,897,349	14,512,361	2,353,662	35,893,113	50,199,315	2,239,954	3,656,408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 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 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 계 Total
34,080	4,756	52,108	3,164	3,115	4,165	1,200	9,099	-	1,205,842
340,624	202,964	163,969	3,303,541	1,136,865	94,312	19,358	4,714,722	-	19,021,817
82,995	62,300	434,212	77,260	149,669	17,140	708,222	196,104	-	14,850,666
0	0	74,199	11,631	4,712	0	151,999	103,513	-	426,927
19,565	11,803	295,114	46,377	114,554	11,406	432,117	74,119	-	4,888,454
17,818	20,112	50,308	5,972	16,698	5,213	4,008	18,047	-	9,099,712
8,112	385	1,091	280	506	520	120	425	-	28,396
37,500	30,000	13,500	13,000	13,200	0	119,978	0	-	407,178
204	0	193	0	45,223	0	0	0	-	7,902,980
204	0	193	0	45,223	0	0	0	-	7,902,980
3,342,141	277,019	4,632,416	1,246,641	15,168,738	5,743	3,269,961	45,018	-	37,745,578
3,342,141	277,019	4,632,416	1,246,641	15,168,738	5,743	3,269,961	45,018	-	37,745,578
202	0	4	1	0	0	0	0	3,535,400	3,540,126
202	0	4	1	0	0	0	0	3,535,400	3,540,126
32,868,157	7,135,848	7,053,816	5,563,284	17,748,485	306,990	5,939,501	5,299,519	3,535,400	247,203,163

03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구 분 Classification	2013년도 본예산 FY2013 Budget	2013년도 추경예산 FY 2013 Supplementary Budget
(1) 농어촌구조개선 (Agri.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A)	12,307,932	12,422,474
(2) 교통시설 (Transportation Facilities S/A)	16,445,436	16,907,436
(3) 등기 (Registration S/A)	267,111	267,111
(4) 교도작업 (Prison Operation S/A)	43,513	43,513
(5) 에너지및자원사업 (Energy & Resources Management S/A)	6,149,519	6,150,289
(6) 환경개선 (Environment Reconstruction S/A)	4,653,803	4,825,013
(7) 우체국보험 (Postal Insurance Service S/A)	689,567	689,567
(8) 주한미군기지이전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stitution Relocation S/A)	453,590	453,590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S/A)	842,450	842,450
(10) 국방·군사시설이전 (Defense Military Installations Relocation S/A)	459,970	459,970
(11) 혁신도시건설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y S/A)	582,691	582,691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Construction of Cultural Hub City of Asia S/A)	136,261	143,261
(13) 광역·지역발전 (Regional Development S/A)	9,731,410	9,972,844
(14) 양곡관리 (Grain Management S/A)	1,417,687	1,417,687
(15) 책임운영기관 (Agency)	841,932	841,932
(16) 조달 (Government Supply S/A)	513,998	513,998
(17) 우편사업 (Postal Services S/A)	3,706,578	3,706,578
(18) 우체국예금 (Postal Savings S/A)	2,936,942	2,936,942
총 계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62,180,389	63,177,345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2,944,189	636,257	5.2	521,715	4.2
16,302,557	△142,879	△0.9	△604,879	△3.6
287,906	20,795	7.8	20,795	7.8
56,741	13,228	30.4	13,228	30.4
5,490,394	△659,125	△10.7	△659,895	△10.7
4,877,040	223,238	4.8	52,028	1.1
774,648	85,081	12.3	85,081	12.3
641,778	188,188	41.5	188,188	41.5
698,661	△143,789	△17.1	△143,789	△17.1
355,961	△104,009	△22.6	△104,009	△22.6
817,380	234,689	40.3	234,689	40.3
181,078	44,817	32.9	37,817	26.4
9,361,289	△370,121	△3.8	△611,555	△6.1
1,498,285	80,598	5.7	80,598	5.7
867,274	25,341	3.0	25,341	3.0
474,850	△39,148	△7.6	△39,148	△7.6
3,803,718	97,140	2.6	97,140	2.6
3,055,552	118,610	4.0	118,610	4.0
62,489,301	308,912	0.5	△688,044	△1.1

04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총액	계속비연부액			
			2007	2008	2009	2010
	2013 예 산	24,329,184,965	333,500,000	653,400,000	2,926,612,000	3,107,643,000
	2014 예 산	25,181,267,770	333,500,000	653,400,000	2,926,612,000	3,107,643,000
일반회계 (해양 수산부)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13 예 산	107,728,000	-	-	22,580,000	25,000,000
	2014 예 산	107,728,000	-	-	22,580,000	25,000,000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 수산부)	2. 부산신항응동배후단지					
	2013 예 산	248,467,000	-	-	77,732,000	45,343,000
	2014 예 산	248,467,000	-	-	77,732,000	45,343,000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 교통부)	3. 지역간선국도3차건설					
	2013 예 산	3,179,046,560	333,500,000	406,000,000	607,400,000	584,900,000
	2014 예 산	3,292,107,000	333,500,000	406,000,000	607,400,000	584,900,000
	4. 지역간선국도4차건설					
	2013 예 산	2,481,025,375	-	247,400,000	438,100,000	403,500,000
	2014 예 산	2,661,580,000	-	247,400,000	438,100,000	403,500,000
	5. 지역간선국도5차건설					
	2013 예 산	4,237,903,070	-	-	555,700,000	573,000,000
	2014 예 산	4,429,456,000	-	-	555,700,000	573,000,000
	6. 물류간선1차건설					
2013 예 산	3,116,904,630	-	-	480,700,000	513,400,000	
2014 예 산	3,148,255,770	-	-	480,700,000	513,400,000	

(단위 :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035,982,000	3,343,657,000	3,696,479,900	3,101,587,500	2,789,535,800	1,544,362,400	612,868,300	-
3,035,982,000	3,343,657,000	3,696,479,900	3,083,944,000	2,963,543,200	1,735,142,400	775,575,900	-
10,000,000	20,000,000	35,600,000	-	-	-	-	-
10,000,000	20,000,000	35,600,000	-	-	-	-	-
73,588,000	24,922,000	26,882,000	-	-	-	-	-
73,588,000	24,922,000	26,882,000	-	-	-	-	-
484,804,000	374,730,000	286,759,000	240,044,000	-	-	-	-
484,804,000	374,730,000	286,759,000	177,837,000	129,665,000	-	-	-
405,329,000	393,515,000	379,865,000	235,450,400	169,115,600	-	-	-
405,329,000	393,515,000	379,865,000	294,610,000	215,594,000	-	-	-
630,000,000	595,301,000	760,995,000	646,624,200	632,389,400	145,151,400	-	-
630,000,000	595,301,000	760,995,000	717,437,000	632,389,400	219,409,600	-	-
535,531,000	459,705,000	528,564,000	370,379,800	217,409,000	114,923,200	-	-
535,531,000	459,705,000	528,564,000	299,930,000	217,409,000	109,273,000	-	-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총액	계속비연부액			
			2007	2008	2009	2010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 교통부)	7. 지역간선국도6차건설					
	2013 예 산	2,003,460,210	-	-		152,500,000
	2014 예 산	2,238,794,000	-	-		152,500,000
	8. 지역간선국도7차건설					
	2013 예 산	1,561,626,260	-	-		-
	2014 예 산	1,628,655,000	-	-		-
	9. 지역간선국도8차건설					
	2013 예 산	1,667,324,860	-	-	-	-
	2014 예 산	1,649,960,000	-	-	-	-
	10. 삼랑진-진주복선전철					
	2013 예 산	1,026,400,000	-	-	329,400,000	280,000,000
	2014 예 산	1,026,400,000	-	-	329,400,000	280,000,000
	11. 성남-여주복선전철					
	2013 예 산	1,337,391,000	-	-	-	-
	2014 예 산	1,407,563,000	-	-	-	-
12. 진주-광양복선전철						
2013 예 산	741,416,000	-	-	-	-	
2014 예 산	739,280,000	-	-	-	-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국토 교통부)	13. 용산-문산복선전철					
	2013 예 산	1,000,895,000	-	-	170,000,000	280,000,000
	2014 예 산	983,425,000	-	-	170,000,000	280,000,000
	14. 오리-수원복선전철					
	2013 예 산	622,000,000	-	-	145,000,000	140,000,000
	2014 예 산	622,000,000	-	-	145,000,000	140,000,000
	15. 수원-인천복선전철					
2013 예 산	997,597,000	-	-	100,000,000	110,000,000	
2014 예 산	997,597,000	-	-	100,000,000	110,000,000	

(단위 :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1,730,000	196,602,000	297,491,900	353,395,600	413,037,800	449,259,600	-	-
171,730,000	196,602,000	297,491,900	344,800,000	413,037,800	449,259,600	221,825,400	-
-	276,882,000	379,194,000	328,258,200	288,884,600	220,092,600	101,806,600	-
-	276,882,000	379,194,000	353,534,000	288,884,600	220,092,600	60,053,660	-
-	-	196,500,000	227,169,300	299,892,400	444,338,600	511,061,700	-
-	-	196,500,000	255,000,000	299,892,400	444,338,600	493,696,840	-
190,000,000	202,000,000	25,000,000	-	-	-	-	-
190,000,000	202,000,000	25,000,000	-	-	-	-	-
-	230,000,000	360,000,000	360,000,000	387,391,000	-	-	-
-	230,000,000	360,000,000	320,000,000	387,391,000	110,172,000	-	-
-	140,000,000	170,000,000	200,000,000	231,416,000	-	-	-
-	140,000,000	170,000,000	200,000,000	229,280,000	-	-	-
250,000,000	190,000,000	77,629,000	33,266,000	-	-	-	-
250,000,000	190,000,000	77,629,000	15,796,000	-	-	-	-
140,000,000	100,000,000	97,000,000	-	-	-	-	-
140,000,000	100,000,000	97,000,000	-	-	-	-	-
145,000,000	140,000,000	75,000,000	107,000,000	150,000,000	170,597,000	-	-
145,000,000	140,000,000	75,000,000	105,000,000	150,000,000	172,597,000	-	-

0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단위 : 천원,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3예산	2014예산	증(△)감
1. 국 방 부 ¹⁾	소 계	28,500,000	28,500,000	-
	▶ 군사시설개선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28,500,000	28,500,000	-
2. 방위사업청	소 계	-	1,200,000	1,200,000
	▶ 패트리엇 성능개량	-	1,200,000	1,200,000

1) 한·미 협정상 주한미군측에 제공할 의무적 군사시설(현물) 개선사업 예산이 주한미군측의 사업선정·설계·부지확보 지연 시 이월될 수 있도록 명시

06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단위 : 천원,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3예산	2014예산	증(△)감
합 계		(\$716,701,399) 2,461,564,050	(\$564,037,375) 2,354,612,197	(\$△152,664,024) △106,951,853
I. 일반회계		(\$468,100,055) 1,680,644,532	(\$564,037,375) 1,854,612,197	(\$95,937,320) 173,967,665
1. 국 방 부	소 계	(\$468,100,055) 1,636,644,532	(\$564,037,375) 1,781,212,197	(\$95,937,320) 144,567,665
	▶ 급식 및 피복	276,586,060	285,277,062	8,691,002
	▶ 장비보건및복지향상	4,789,960	-	△4,789,960
	▶ 군수지원및협력	(\$468,100,055) 1,355,268,512	(\$564,037,375) 1,495,935,135	(\$95,937,320) 140,666,623
2. 해양경찰청	▶ 대형함정	44,000,000	73,400,000	29,400,000
II. 특별회계		(\$248,601,344) 780,919,518	(\$0) 500,000,000	(\$△248,601,344) △280,919,518
1.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국방부)	▶ 평택기지이전	(\$248,601,344) 280,919,518	-	(\$248,601,344) 280,919,518
2.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소 계	500,000,000	500,000,000	-
	▶ 일반국도 건설	400,000,000	400,000,000	-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0,000,000	100,000,000	-

www.mosf.go.kr

제2장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 0 1 4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4

0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기금(Employment Insurance Fund) - 공무원연금기금(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국민연금기금(National Pension Fund) - 군인연금기금(Military Pension Fund)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계정성기금 Account Fund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금관리기금(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공적자금상환기금(Public Fund Repayment Fund) - 복권기금(Lottery Fund) - 양곡증권정리기금(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외국환평형기금(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금융성기금 Financial Fund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신용보증기금(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 구조조정기금(Finance&Corporate Restructuring Fund)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s)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무역보험기금(Korea Trade Insurance Fund) - 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진흥기금(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관광진흥개발기금(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국민건강증진기금(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 - 국민체육진흥기금(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국유재산관리기금(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 국제교류기금(Korea Foundation Fund) - 군인복지기금(Military Welfare Fund) - 근로복지진흥기금(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금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 낙동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구 분 Classification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4개)	-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
	- 농산물가격안정기금(Fund for Agro-Fishery Marketing Price Stabilization)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Reinsurance Fu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 농지관리기금(Farmland Management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문화예술진흥기금(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문화재보호기금(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방송통신발전기금(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범죄피해자보호기금(Crime Victim Protection Fund)
	- 보훈기금(Merit Reward Fund)
	- 사학진흥기금(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 석면피해구제기금(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 수산발전기금(Fisheries Development Fund)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 Independence Fighters)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 언론진흥기금(Korea Press Fund)
	- 여성발전기금(Women's Development Fund)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Youngsan and Sumjin River)
	- 영화발전기금(Film Development Fund)
	- 원자력연구개발기금(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 응급의료기금(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 임금채권보장기금(Wage Claim Guarantee Fund)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 Support Fund)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 전력산업기반기금(Electric Power Industry Fund)
	- 정보통신진흥기금(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지역신문발전기금(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청소년육성기금(Youth Supporting Fund)
	- 축산발전기금(Livestock Development Fund)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The Fund for Use Rationalization of Specified Substances)
	- 한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합 계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단위 : 조원(In Trillion KRW)

구 분 Classification	운용규모 Fund Operation			
	2013년도 FY 2013	2014년도 FY 2014	증감률(%) Rate	
합 계(Total)	497.5	515.4	3.6	
수입 Revenue	▶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130.9	138.2	5.6
	▶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132.6	115.1	△13.2
	▶ 차입금(Borrowings)	101.5	114.5	12.8
	▶ 여유자금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132.5	147.6	11.4
지출 Expenditure	▶ 사업비(Project Cost)	88.9	94.5	6.3
	– 사회보험성 (Social Security Fund)	43.4	47.2	8.7
	– 금융성·계정성 (Financial/Account Fund)	8.0	8.0	0.8
	– 사업성(Project Fund)	37.5	39.3	4.7
	▶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Cost)	2.1	2.1	0.7
	▶ 정부내부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234.7	240.7	2.6
	▶ 여유자금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171.8	178.1	3.7

0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82,688	372	-	29,851	112,910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23,856	567,587	974,790	752	1,566,985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24,138	31,472	850	26,161	182,622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2,918	86,811	-	-	89,729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311	4,556	-	216	5,083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7,670	244	-	1,017	8,930
구조조정기금 (Fiance&Corporate Restructuring Fund)	20,737	-	-	4,824	25,562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17,188	4,817	-	1,310	23,314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505,419	102	-	550,681	1,056,202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146,035	11,473	95,000	212,620	465,128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9,030	733	-	2,250	12,013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10,340	-	-	-	10,340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512	6	-	578	1,096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5,979	61	-	3,254	9,294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5,146	23,505	-	540	29,191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r Welfare Promotion Fund)	732	345	-	1,755	2,832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1,071	-	-	77	1,148
기술신용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10,807	2,052	-	14,890	27,75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202	-	-	10	2,212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274	9,303	-	5,397	15,97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3,948	100	-	12,812	16,86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o-Fishery Marketing Price Stabilization)	25,529	32	-	3,144	28,70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s)	491	490	-	18	999
농어업재해보험기금 (Reinsurance Fu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200	700	-	498	1,398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2,098	413	-	4,445	16,956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273	5,955	-	853	8,081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9,937	1,400	-	20,536	31,873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2,333	638	-	3,176	6,147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64	991	-	251	1,30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8,553	2,117	-	5,985	16,656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6,726	258	-	3,801	10,78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3	530	-	61	594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2,304	256	-	3,541	6,101
복권기금 (Lottery Fund)	34,392	5,922	-	2,547	42,8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	43,441	6,392	-	55,122	104,955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2,187	1,086	-	1,081	4,35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365	180	-	2,579	3,12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66,241	3,546	-	49,067	118,854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122	30	-	254	406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5,941	633	-	1,356	7,93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 Independence Fighters)	90	51	-	464	605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4,003	4,621	-	33,645	62,269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21	2,155	-	20	2,196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3	4,952	-	86	5,041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112	-	-	400	512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60	1,506	-	67	1,63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oungsan and Sumjin River)	798	-	-	72	870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1,111	214	-	2,328	3,65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26,708	-	14,000	30,945	71,654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19,346	338,114	28,000	335,221	720,68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2,222	-	-	272	2,494
응급의료기금 (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145	1,903	-	133	2,181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4,809	232	-	5,454	10,49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FTA Support Fund)	923	4,926	-	772	6,62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3,004	250	-	2,034	5,288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24,016	240	-	7,240	31,496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7,243	2,086	-	2,777	12,10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9,989	-	-	23,990	33,978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42,834	10,310	32,447	-	85,591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31	50	-	51	131
청소년육성기금 (Youth Supporting Fund)	213	467	-	207	886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5,748	3,974	-	2,046	11,767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The Fund for Use Rationalization of Specified Substances)	53	-	-	95	148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4,545	-	-	235	4,780

0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69,476	1,073	-	42,361	112,910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2,335	1	1,563,894	755	1,566,985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44,609	820	200	36,992	182,622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858	23	87,553	1,295	89,729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817	9	4,206	50	5,083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8,550	5	-	375	8,930
구조조정기금 (Finance&Corporate Restructuring Fund)	-	112	23,978	1,472	25,562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20,029	1	666	2,619	23,314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148,135	4,052	-	904,015	1,056,202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159,844	5	246,647	58,631	465,128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8,977	253	2,000	783	12,013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9,449	19	18	854	10,340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463	119	300	214	1,096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5,302	-	880	3,111	9,294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28,037	4	-	1,150	29,191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계 Total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r Welfare Promotion Fund)	995	119	59	1,659	2,832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1,059	19	-	70	1,148
기술신용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11,718	1,539	1,500	12,993	27,75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071	34	-	108	2,212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1,132	52	4,031	758	15,97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1,707	593	10,000	4,561	16,86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o-Fishery Marketing Price Stabilization)	24,363	487	-	3,855	28,70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s)	975	-	-	24	99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Reinsurance Fu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230	7	-	1,162	1,398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9,475	619	5,000	1,862	16,956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7,627	115	167	171	8,081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8,979	1,048	-	21,845	31,873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1,740	127	1,295	2,985	6,147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1,028	2	11	266	1,30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719	17	4,600	10,320	16,656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5,864	45	2,400	2,477	10,78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570	-	-	23	594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1,291	12	513	4,285	6,101
복권기금 (Lottery Fund)	24,549	10	16,280	2,022	42,8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	37,350	854	-	66,752	104,955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2,289	54	948	1,063	4,35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204	107	-	2,813	3,12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44,139	3,016	3,000	68,699	118,854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134	17	-	255	406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5,730	15	66	2,119	7,93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 Independence Fighters)	76	1	-	528	605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5,244	3,071	3,500	30,454	62,269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200	77	1,898	20	2,196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4,952	89	5,041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24	4	-	284	512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1,506	-	49	77	1,63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oungsan and Sumjin River)	750	13	-	108	870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927	99	300	2,327	3,65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121	106	57,843	13,584	71,654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계 Total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	7	310,101	410,573	720,68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1,947	40	-	506	2,494
응급의료기금 (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2,072	1	-	108	2,181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2,762	103	700	6,930	10,49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FTA Support Fund)	6,083	36	-	501	6,62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2,089	490	225	2,485	5,288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17,289	84	3,000	11,122	31,496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6,905	169	2,500	2,533	12,10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3,556	662	-	29,760	33,978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42,780	920	41,890	-	85,591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102	7	-	23	131
청소년육성기금 (Youth Supporting Fund)	698	-	27	161	886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11,210	36	56	465	11,767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The Fund for Use Rationalization of Specified Substances)	30	5	-	113	148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4,343	82	-	355	4,780

www.mosf.go.kr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성 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장문선	예산관리과 과장	종합 편집
이철규	예산관리과 사무관	"
문상호	예산관리과 사무관	"
김현석	예산관리과 사무관	"
이성민	예산관리과 주무관	"
김효정	예산관리과 에디터	"
강승준	예산총괄과 과장	제3부 중 2014년도 예산, 예산통계
김경국	예산총괄과 서기관	"
주병욱	예산총괄과 주무관	제3부 중 예산통계
임기근	예산정책과 과장	제2부 중 재정운용 여건, 세입규모, 지출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14년도 재원배분 방향,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윤범식	예산정책과 서기관	"
신명석	예산정책과 사무관	"
이중진	예산정책과 사무관	"
전형식	기금운용계획과 과장	제3부 중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 통계
권기정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한재수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제3부 중 기금통계
류광준	연구개발예산과 과장	제2부 중 R&D 분야
정희철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김연성	산업정보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류승수	산업정보예산과 서기관	제2부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김동일	국토교통예산과 과장	제2부 중 SOC분야
박철건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성일홍	농림해양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김도영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김윤상	복지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보건·복지 분야
김준철	복지예산과 서기관	"
우해영	고용환경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일자리 분야, 환경 분야
강경구	고용환경예산과 서기관	제2부 중 일자리 분야
김용승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제2부 중 환경 분야
유병서	교육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교육 분야
박현창	교육예산과 사무관	"
김형수	문화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진민규	문화예산과 사무관	"
송복철	국방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국방 분야
이민호	국방예산과 사무관	"
이헌태	행정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외교·통일 분야
김종락	행정예산과 사무관	"
박영각	법사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공공질서·안전 분야
권성모	법사예산과 사무관	"

- 예산개요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개요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02 - 734 - 6818(매장) 또는 02 - 394 - 0337(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20-10
발 행 처 기획재정부
발 행 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발 행 일 2014년 2월
연 락 처 Tel. 044-215-7193
Fax. 044-215-8041

값 : 14,000원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